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5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에 대한 실행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손 명 희

만 5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에 대한 실행연구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손 명 희

인 준 서

손명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사랑유치원 맑은반의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관 관람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역할 및 유아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맑은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효과적인 미술관 관람을 위한 개선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사랑유치원 만 5세 맑은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맑은반 유아 22명과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이다. 연구 기간은 2008년 9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2회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한 후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6회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문제 파악과 변화의 계획,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으로 진행되었다. 맑은반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관 관람 활동의 전 과정을 참여관찰하면서 녹화하고 전사하였고, 현장기록자료, 사진자료, 면담자료, 교사 저널 등의 수집된 자료를 유형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사전에 계획하여 미술관에서 감상하려는 미술전시나 작품 이외의 다른 작품에 유아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보일 때 감상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미술관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도슨트에게 관람을 맡길 것인지, 교사가 유아들을 인솔하면서 안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고,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작품 관람을 할 경우에는 사전 점검이 필요했다. 그리고 유아들이 미술관에서 감상했던 작품을 보고나서 자신이 그리는 그림과의 차이, 즉 보는 것과 자신이 직접 해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크게 느끼면서 미술표현에 대한 좌절과 흥미를 잃게 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술관에서 유아들이 교사가 계획하지 않은 다른 작품에 관심을 보일 때 정해진 주제만을 보도록 제한하지 않고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슨트의 설명과 안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도슨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한 후 실행을 하였다. 또한 자신의 그림에 대한 유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술관 관람 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중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중기에는 초기보다 유아들의 탐색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많이 보였다.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면서 희미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재료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궁금증과 알지 못한 미술 재료들을 경험하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경험하였다. 유아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의 제목과 그림을 서로 연관 지어 보면서 어떠한 의미와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였고 미술관이 즐겁고 신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교사가 이끌고 제시해주는 활동에는 즐겁게 참여하였으나 스스로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 교사가 이끌어 준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속에서 찾아보고 알아가는 소극적인 과정의 경험이었다. 그래서 유아들의 작품으로 만든 미술관을 기획해 보게 되었다. 또한 작품을 보고 토의를 하고 서

로의 생각도 나누고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함께 구성해가는 모습도 부족했다. 유아들이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관 관람 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후기단계에는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관람하고 활동을 진행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유아들이 직접 자신들의 그림으로 꾸며진 미술관을 만들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기 전, 후의 활동을 유아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유아들의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가 미술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통합까지 생각하면서 무언극을 사후활동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는 지원자, 그리고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배우는 공동의 지식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도와주고 깊이 있게 사고하며 행동하고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비해주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미술관에서 느꼈던 미적인 안목과 예술적인 요소 등을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나 대상에서 찾아보고 미적인 가치를 느끼고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자의 배경	6
4. 용어의 정의	11
II. 이론적 배경	12
1. 유아 미술 교육에서의 감상	12
1) 미술 감상의 의미	12
2) 유아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	14
2. 유아의 미술관 관람	17
1) 미술관 관람의 중요성	17
2) 미술관 관람에서의 교사의 역할	21
3. 선행연구	23
III. 연구방법	29
1. 실행연구	29
2. 연구대상	30
3. 연구절차	34
4. 자료수집	38
5. 자료분석	41

IV. 결과 및 해석	43
1. 맑은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3
1)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43
(1) 주제와 관련 된 것만 보기를 원하는 교사 vs 흥미 있는 것에만 눈 돌리는 유아들	44
(2) 어떤 것을 택할지?: 도슨트의 안내 vs 교사의 안내	49
(3) 눈으로 볼 때와 직접 그려 볼 때는 너무 달라!	55
(4)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 : 교사의 고뇌	60
2) 효율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을 위한 개선 방안	61
2. 미술관 관람 활동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	64
1) 퍼즐조각을 맞추듯이: 조금씩 달라지기	64
(1) 안개를 헤치며 나오듯 : 희미하게 조금씩 알아보기	64
(2) 호기심을 느끼며 : 재료와 도구에 대한 탐색 시작하기	68
(3) 생각을 끄집어내며 : 작품과 제목의 연관성 찾기	72
(4) 감상을 이렇게 해 볼까? : 다양하게 감상하는 방법들	74
(5)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아내며: 신기한 미술	78
(6) 막상 와보니 재미있는 곳: 미술관은 즐겁고 신나는 놀이터	81
(7) 미로에서 탈출구 찾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교사	85
2) 짧은 감상 긴 여운 : 삶 속에 녹아있는 미술	91
(1) 미술은 마술이다 : 무한한 재료, 끝없는 상상	92
(2) 미술은 꿈과 희망이다 : 꿈을 심는 화가들, 우리들만의 미술관	95
(3) 미술은 요리다 : 생각한 줌, 마음의 한 줌으로 맛을 더하다	101
(4) 미술은 생활이다 : 온 세상이 미술관이네요	103
(5) 더 크고, 넓고, 깊게 : 늘 준비 되어 있는 교사되기	104

V. 논의 및 결론	106
1. 논의 및 결론	106
2. 제언	11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맑은반의 하루일과	32
<표 2> 맑은반의 연구일정	34
<표 3> 맑은반에서 실시한 미술관 관람 활동	37
<표 4> 수집한 자료	41

사 진 목 차

[사진 1] K미술관입구 야외조각	47
[사진 2] 3층 농기구전시실관람	49
[사진 3] 1층 옥공예실 관람	49
[사진 4]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감상하는 유아들	52
[사진 5] 민화전시실에서 도슨트 안내에 따라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 ..	52
[사진 6] K미술관 관람 후 사후활동을 하는 모습	58
[사진 7] 수묵채색화를 그리고 있는 유아	60
[사진 8] 유아가 그린 수묵채색화	60
[사진 9] 유아들의 수묵채색화 작품	60
[사진 10] 화가를 초대하여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장면	69
[사진 11] 화가의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	69
[사진 12] 같은 색의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	70
[사진 13]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칠해보는 유아	70
[사진 14] 야외조각의 재료를 탐색하는 유아들	71
[사진 15] 야외조각을 감상하는 유아들	71
[사진 16] S아트센터 야외 조각전	71
[사진 17] 조각을 보면서 유아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	74
[사진 18] 조각의 작품설명과 제목을 보며 감상하는 모습	74
[사진 19]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유아들	77
[사진 20] 작품을 따라 해보는 유아들	78
[사진 21] G미술관에서 벽화감상하기 전 주의점을 이야기하는 안내 자와 듣고 있는 유아들	84
[사진 22] G미술관의 벽화를 전시한 모습	84

[사진 23] G미술관의 벽화	84
[사진 24] 설치미술작품을 만들어서 복도에 전시해 둔 모습	84
[사진 25]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90
[사진 26] 동판화제작 모습	94
[사진 27]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95
[사진 28]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100
[사진 29] 유아들의 작품으로 전시한 미술관	100
[사진 30] 디자인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유아들	103
[사진 31] 무언극을 하고 있는 유아들	10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정보화인 현대사회에서는 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하면서 이에 따른 문화적인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즉, 사회가 급변하고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높은 삶을 영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교실 안에서의 활동을 넘어서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학습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학습 장소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종진, 2000)

이와 더불어 최근의 유아미술교육의 흐름은 표현중심교육에서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해중심 미술교육에서는 표현중심 미술교육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감상영역을 표현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김수경, 2009). 미술 작품 감상은 예술품이나 자신 또는 또래의 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미술비평과 미적 판단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토의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에 흥미를 갖고 서로의 생각이나 표현이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이경수, 2006). 또한 다양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 풍부한 표현의 동기와 정보를 갖게 한다. 유아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며 그림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Dewey(1945)에 의하면 감상활동은 작품의 대상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유아들 간에 작품을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생각이나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적 감각을 함양하는 수단이 된다(배정미, 2006, 재인용).

미술 감상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아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감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감상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던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감상활동이 유아는 여러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장순미(2007)와 배정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이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여 감상하는 활동은 그림 표현 능력과 감상능력을 향상시킨다. 김영자(2007)는 유아들끼리의 협동학습에 기초한 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표상능력과 정서지능의 향상에 효과적이고 그림 표현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정혜정(2003)은 입체조형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은 유아의 입체, 평면 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가현(2005)과 최경선(2001)은 추상화와 인물화를 감상하는 활동은 유아의 그림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통합적인 미술 감상활동은 유아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전주희, 2004)도 보고되었다. 또한 탐색, 표현, 감상을 균형적으로 통합시킨 미술 활동은 유아의 창의성, 정서지능, 공간능력, 미적반응과 표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이경수, 2006; 안진아, 2003; 윤정숙, 2005;; 이수연, 2002). 이미자(1998)은 그림 감상 활동은 유아의 그리기 표현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주제에 따라 선정된 명화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 활동 과정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미술표현능력, 감상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정미정, 2003). 명화감상활동 또는 명화감상활동과 연계되는 활동, 명화감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의 미술 활동 과정과 창의성, 이미지 표현, 표현방법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위환, 2005; 장혜진, 2006; 지옥녀, 2003; 박민형;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술 감상은 유아의 미술 표현 능력, 감상능력, 태도, 창의성, 정서지능, 공간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감상교육은 작품을 직접 보고 탐색함으로써

써 심미감과 비평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동기와 감성적인 인성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진, 2000). 그러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감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감상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2000년도 초반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서 논의 되어 오고 있다(김문자, 2005; 김보영, 2006; 김수경, 2009; 김진희, 2000; 송도연, 2000; 유혜정, 2004; 이인숙, 2000; 이종진, 2000). 효과적인 미술 감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 교육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술 감상활동 자료 개발과 교사들을 위한 미술 감상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감상교육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문자, 2005; 김보영, 2006; 김수경, 2009; 유혜정, 2004; 이인숙, 2000).

감상교육의 중요성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과거의 표현위주의 미술교육 방법에서 그 내용을 조정하여 내용체계에 '탐색'을 신설하여 탐색과 감상, 그리고 표현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8).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적 경험의 과정이나 개별적 느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의 '표현' 범주를 '예술적 표현 즐기기'로 수정하였고, 하위내용에 '창의적인 표현과정 즐기기'를 추가하여 유아가 다양한 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시도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여 과정을 즐기는 것을 보다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으로 유아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며, 예술적 경험의 과정이나 개별적 느낌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넓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현대사회 동향과 표현중심에서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으로 변화하면서 감상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미술 감상 활동 중에서 하나의 활동방법으로 유치원 인근의 미술관을 선정하여 현장학습을 가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주변에 크고 작은 미술관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지역축제나 관공서 등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들이 있어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기회의 과정을 통해서 관람 예절을 배우고 미술품과 친숙해지면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 관람을 통해서 감수성과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유아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품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이 감상활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미술 교육을 주로 표현활동에만 치우쳐있고 감상활동은 교실 내에서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문자, 2005; 김보영, 2006; 김수경, 2009; 김진희, 2000; 송도연, 2000; 유혜정, 2004; 이인숙, 2000; 이종진, 2000). 미술교육이 표현활동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이 균형적일 때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될 수 있다(이경수, 2006).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물의 미적 요소나 주제, 재료 등을 분석하고 음미하는 감상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숙재, 2002).

미술 감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술 감상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감상활동은 유아들에게 꼭 필요하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미술 감상활동을 교실에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하는 간접적인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아들이 다양한 예술품을 관람하면서 실제 작품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미술관을 방문함으로써 감상활동의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은 유아에게 좋은 작품을 만나면서 미적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의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장순미, 2007).

미술관 관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술관 프로그램 개발이나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학교와 미술관을 연계하는 연구 또는 미술관 감상 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미술관 교육의 실태조사연구와 미술관 교육에 대한 학예사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어린이를 위한 전문 도슨트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미술관 관람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그림 표현력과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 대부분의 연구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연구(강윤정, 2003; 김지원, 2007; 김희진, 2002; 최혜경, 2006; 황정애, 2002) 미술관에서의 전시하는 특정한 주제를 적용한 연구(박승순, 2006) 실태분석 및 교사인식연구(예진희, 2000; 이인숙, 2000; 이종진, 2000)에만 치중되어있다.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관람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조망과 교사와 유아의 역할과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또는 미술관에서 감상활동을 하고 관련 사전, 사후활동을 하는 과정을 질적 분석 방법으로 효과를 밝히는 연구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랑유치원에서도 미술관 관람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주제와는 연계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미술관 관람에 대한 교육적인 활동을 의미있게 전개하지 않고 단지 유아들과 함께 둘러보고 온다는 식으로 다녀오거나 다녀와서 미술관에 가서 보았던 것을 그리거나 다녀온 느낌을 말해보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유아들과 활동으로 전개하고 확장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사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술관 관람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방법이

나 활동 과정도 전무한 점이 한계가 되고 있으며 둘러보기식 일회성의 현장 학습으로 만으로 끝나버리는 의미 없는 미술관 관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맑은반 유아들의 효과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을 위하여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사전활동, 미술관 관람, 사후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유아들과 교사에게 나타나는 변화과정에 따른 교육적인 효과를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효과적인 미술관 관람을 위한 개선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

3. 연구자의 배경

미술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게 까지 부담 없이 늘 주변에서 작품이나 물건이나 자연을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자신도 돌이켜보면 8살쯤 아빠가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사다주신

여러 가지 색깔의 목걸이는 나의 미술적인 감각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한 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희한하게 아름다운 빛이 나고 화려한 색으로 조화를 이루던 목걸이에 매료되어 늘 목에 걸고 다녔고 그 구슬의 색깔을 볼 때면 정말 행복했었다. 어린 나이에 그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직 까지도 그때의 가슴 벅찼던 마음이 생각난다. 그때부터 색깔에 민감해지고 주위의 사물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미술을 즐기고 재미있어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엄마는 만들기 방학숙제를 늘 도와주셨다. 미술전공이 아니신 엄마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찰흙, 수수깡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푹푹푹푹 금방 입체작품을 만들어주셨다. 찰흙 유선전화기, 수수깡 집, 나무젓가락 탑등 정말 사진을 찍어 놓은 듯 똑같이 금방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신기할 따름이었다. 엄마와 함께 만든 것을 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방학과제 만들기 상도 여러번 받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까지는 잠시 디자인을 배우게 되면서 더욱더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입학 후 유아교육과에서는 교구제작이나 교수자료를 제작하면서 미술적 요소가 포함된 과제를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엄마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었고 또한 나도 열심히 작업 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 강의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교구나 교수자료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감각 있게 만들었다고 칭찬도 해 주셨고 실습을 나가서는 담당 담임교사에게도 미술적인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또 받게 되면서 내 자신이 미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 뿐 아니라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다. 교직생활을 하는 초임시절부터도 교실환경 구성이나 벽면 게시판을 꾸밀 때, 그리고 유아들과 미술작업을 하면서 색을 사용할 때도 다른 교사와는 조금 다른 색감을 사용하고 감각이 뛰어나다고 원장님이나 원감선생님도 인정해 주셨었다. 또한 2년차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재·교구전으로 교육감상을

받기도 하였다. 틈틈이 전시회나 사진전을 관람하면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인사동이나 삼청동등의 미술관이나 골목길 등을 다니면서 미술에 노출되어있는 환경이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2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면서 유아들과 조형 활동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교실 내에 전시를 하다보면 유아들이 서로 어떻게 그렸는지 친구들의 그림을 인정해주기보다는 못 그리고 잘 그렸다는 기준을 가지면서 감상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미술이라는 것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기준이 있을까? 아이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4년 전, 예술의 전당이나 주변 박물관, 미술관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유치원으로 공문이나 연락이 와서 견학을 하게 되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 프로그램이라서 이해하기 쉬웠고 양질의 예술적인 혜택을 받은 듯한 느낌과 무척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미술관에 다녀와서 경험했던 것을 그린 유아들의 그림 속에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림이 담겨있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교사인 나에게 서로 이야기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년전 부터는 연간 현장학습 일정 계획안을 연초에 작성하면서 만 5세반은 월 1회 미술관을 관람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미술관에 가게 되면서 생활주제와는 상관없이 가서 관람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주제를 하면서 '수목화'를 감상하고 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좋은 작품을 감상하고 온 것이지만 주제와는 상관없다는 생각, 또는 미술관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 없으므로 교사의 관심은 낮아지게 되고 유아들도 그저 바깥바람을 쐬고 온다는 정도의 기분으로 형식적인 견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관에 가서 미술작품을 보면서 유아들과 의미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였다. 다양한 작품을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을 한 후 이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녀오고 나서의 기분을 묻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정도로 그

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우리 반의 민서라는 유아의 엄마와 학기 초 상담을 하고나서 미술관 관람 활동에 더욱 동기유발이 되었던 것 같다. 민서는 남자아이인데 무척 발음도 정확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아이였다. 민서라는 아이의 엄마는 미술대학을 나와서 큐레이터로 계속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중학생 누나와 누나 친구들 함께 그룹으로 덧생이나 수채화 등의 미술지도를 해오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민서도 중학생 누나들과 함께 미술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민서는 중학생의 미술표현 수준과 민서 자신의 그림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민서가 미술에 자신감을 잃어간다고 속상해 하셨다. 민서는 "왜 나는 사람이 졸라맨처럼 되요?, 누나들은 진짜처럼 똑같이 그리는데?" 라고 누나와 자신의 그림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했고 민서는 원래 나는 미술을 못하는 애라고 부모에게나 주변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는 중에 마침 학기 초 방과 후 특별활동을 신청하게 되어 민서 어머니는 민서가 또래끼리의 그림을 보면서 안도감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활동을 하도록 결정하셨다. 그런데 방과 후 미술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며칠 후 미술교사가 민서가 그림을 느리게 그리자 "여섯 살 동생들은 다 그리고 정리까지 했는데 너는 아직도 이게 뭐니?"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민서가 상처를 받아 두 명의 누나, 아빠, 할머니가 각각 현관문에 들어 설 때마다 "저는요, 미술에 완전히 소질이 없어요. 엄마처럼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전 미술을 하지 말아야 해요" 라는 말을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되풀이 하면서 상처를 곱씹고 있었다고 민서엄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미술에 대한 민서의 자신감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미술을 싫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아들에게 미술교육이란 무엇일까, 알록달록하게 짹짹하게 색칠하고 도화지를 가득 채워 그리기만하면 미술이 소질이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그와 반대라면 소질이 없는 것일까, 유아들에게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할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나와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민서, 그리고 미술관에 의미 있게 다녀오고자 하는 생각을 종합해서 미술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한번 그 변화를 통한 전환점을 마련해 보고 싶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교사들은 미술교육 활동은 자료만 있으면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다양한 재료의 제공이 유아의 미술교육 활동의 전부는 결코 아니며 탐색과 표현과 감상의 세 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술관 관람이 대중적이 되고 국립미술관에서부터 동네의 작은 동사무소의 미술전시회까지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유아들에게도 많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유치원에서도 미술관에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술관을 다녀오고 나서의 경험들에 대한 것을 교실에서 연계하여 전개하지 못하고 미술관에 다녀온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들과 교실에서 명화감상을 하면서 이전의 미술관 관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술관에서 본 작품과 같다, 비슷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관람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아들 개별적으로 주변의 사물이나 그림 등을 보면서 미술관에서 본 것들을 연결 지어 말할 때는 교사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 미술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마는 미술관 관람이 아니라 미술관 관람을 통해서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확장하고 전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직접 유아들과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느끼고 생각해보는 감상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미술관의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유아들이 경험하

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미술관의 경험과 생생한 느낌을 교실로 끌어와서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하는 의미 있는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아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느끼고 미적안목을 갖게 되길 바라며 직접 하는 표현활동 뿐 아니라 감상이라는 중요하고 깊이 있는 활동도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4. 용어의 정의

1) 미술관 관람 활동

미술관 관람 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유아가 미술관에 가서 작품이나 대상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 관람을 하기 전에 전시 주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전활동, 미술관 관람의 본 활동, 전시주제와 관련된 미술 활동을 해보는 사후활동으로 전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도슨트(docent)

도슨트란 미술관의 전시 설명 요원, 전시해설자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계층의 미술관 관람객과 교육 참여자들에게 전시와 작품을 해설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미술교육에서의 감상

1) 미술 감상의 의미

감상이란 미적 대상으로부터 주관적인 심미작용에 의해서 미(美)가 향유되는 것을 의미한다(권준범, 류재만, 유혜정, 2004). 또한 직관과 정감의 심적 작용에 대하여 대상의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지성적인 반응 활동으로 예술작품을 맛보고 즐기는 감성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정의하며, 더 나아가 예술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감상이라고 한다(홍창희, 1996).

미술 감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 해 왔다. 학자들의 감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규선, 김동영, 류재만, 전성수, 최윤재, 권준범, 2000). 첫 번째는 보고 느낀 아름다움과 듣고 느낀 즐거움을 미(美)라고 할 수 있고 보고 들으며 느끼는 작용을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를 보고 즐기는 정서적 반응을 강조한 유형으로 주관적인 감상은 지적 판단이 아니라 미적 대상으로부터 주관적인 심미작용에 의해 미가 향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지적반응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감상을 단순한 감상적 향수가 아니라 이해와 인식의 일원으로 미적가치를 감독하는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정서적 반응과 지적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유형으로 미를 즐기는 정서적 반응과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 지적 반응을 모두 강조함으로써 감상이 단순히 즐기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과 지성이 모두 반영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견해이다. 미술 감상은 미술

작품이나 자연의 대상 등 구체적인 가치에 대해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미술의 이해와 구분된다. 미술작품이나 자연에 대해 이해를 한다는 것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작품이나 자연을 감상한다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이다(김문자, 2004).

Eisner(1984)는 미술 감상 능력은 세상을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은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느끼기, 작품 형태 지각하기, 미술작품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작가의 의도와 재료의 선택 이해하기 등의 내용이 미술 감상에 포함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 감상이란 감각과 지각을 통해 미술작품이나 조형물, 환경 등에서 미를 즐기고 작품의 미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내면화된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유혜정, 2004). 감상활동을 하면서 유아는 주의 깊고 자세히 작품을 바라보는 행동적 특성을 나타낸다. Bloom은 이러한 행동은 감상(Receiving)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응(Responding), 가치화(Valuing), 조직화(Organization)의 과정을 거쳐 인격화(Characterization)에 이르러 내면화 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감상은 대상의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 과정이며 미적 대상과 주체의 만남에서 주체가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문세라, 2004, 재인용).

이상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미술 감상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반응과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 지적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적인 미술교육을 통해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 대상의 미적 가치를 느끼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즐기고 작품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미적인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내면화과정이 미술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

과거 표현중심 미술교육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미술도 하나의 지식체계로 보았고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경시하고 표현과 제작에만 치우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중심 교육의 대안으로 이해중심 미술 감상교육이 대두되었다. 이해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을 다른 일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미술자체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창의력 향상에만 관심을 두었던 표현중심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이론적 학습을 통해 작품을 이해시키는 능력, 다시 말하면 통찰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해중심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경진, 2005).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이 대두됨에 따라 표현 중심 또는 창의성 중심 교육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감상교육이 미술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1994).

세상을 심미적으로 보는 눈은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실기를 통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미술관과 관련이 없는 직종을 갖고 살아갈 대부분의 유아들을 위해서는 표현만을 강조하기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다 잘 느끼고 표현하며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지원, 2007). 다시 말하면 미술교육이란 미술가나 장인이 되기 위한 전문 기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을 통해 미적 감수성, 정서, 창의성 등의 인격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임방연, 1983). 그러므로 예술작품과 자연을 감상하면서 시각적, 예술적 요소를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미적인 감각과 미적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아 미술 감상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미술 감상의 중요성과 맥락을 같이 하여 현대 미술 교육에서 감상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화윤, 2007). 첫째, 유아는 감상을 즐기면서 미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작품 감각에 대한 아이디

어를 주고 또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기작품을 비평하면서 감상하는 기회를 가지므로 감상교육은 유아의 표현능력 발달에 기여한다.

둘째, 조형감각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이나 조형품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는 감상을 통해 내면세계를 신장시키므로 감상교육은 유아의 조형감각의 발달에 기여한다. 셋째, 유아들은 조상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그 시대의 생활양식이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어 민족문화의 맥을 주체적으로 이어가고 또한 인류가 남긴 미술품을 감상함으로써 서로 다른 풍물과 문화도 이해하게 되므로 감상교육은 유아의 문화의 이해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화가의 작품이나 주변 자연을 보고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미술 감상에 대한 중요성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표현중심에서 감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때부터는 감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였고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표현생활영역의 수준별 내용으로 탐색, 표현, 감상으로 구분 지었다. 2007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생활영역에서 수준별 내용으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감상하기로 구분 지었다. 그 중에서 조형영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가 예술적 활동에 대해 개별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도록 하였다. 수준별 내용의 '감상하기' 부분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적 표현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예술을 감상하기로 세분화하였다. 2007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통합적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교육과학 기술부, 2008).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감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속에서 감상과 표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아(2006)는 훌륭한 작품에 대한 감상은 주변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아 미술 감상교육이 중요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상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정서지능, 창의성, 미술능력, 그림 표현능력 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김영자, 2007; 김주희, 2004; 이경수, 2006; 문은식·홍미숙, 2005; 박화윤, 2001; 이위환·최성열, 2005; 장혜진, 2005; 전주희, 2005; 정혜정, 2003) 미술 감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정도와 감상교육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김문자, 2004; 김보영, 2007; 김수경, 2009; 김진희, 2000; 송도연, 2000; 유혜정, 2004; 이인숙, 2001)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영자(2007)는 미술작품을 정서적으로 느끼게 하고 시·지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미술 감상활동을 협동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미술표상능력과 정서지능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경수(2006)는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표현활동에 제한되지 않고 미술에 대한 탐색과 감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은식과 홍미숙(2005)은 통합적 미술 감상 활동은 선 표현능력, 색 표현능력, 화면구성능력, 주제 표현 능력과 같은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장혜진(2005)의 연구에서는 명화감상과 연계된 확장활동의 경험이 유아의 미술 능력과 창의성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위환·최성열(2005)의 명화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 표현 능력과 미술 활동 과정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화윤(200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 작품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가현(2005)은 추상화를 통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력과 충만감(충만감이란 선의 다양성, 명암이나 그림자 등의 묘사를 나타내는 능력을 말함), 심미적 감수성(심미적 감수성이란 장식, 패턴, 반복, 리듬감, 균형 등의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함)이 증진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혜정(2003)의 연구에

서는 미적요소에 기초한 입체 조형작품 감상 활동의 경험이 유아의 입체 표현 능력과 평면 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희(2004)는 통합적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 인식 능력향상과 정서 표현능력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유아교육학자들은 이러한 미술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감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다음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볼 수 있다. 이인숙(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유아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지만 실제 교육활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미술 감상 활동자료 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교수매체의 개발, 지원으로 인하여 미술 감상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미술 감상 교육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인적 미술 감상 지원을 알아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김문자(2004)의 유아미술 감상지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김보영(2006)과 유혜정(2004)은 유치원교사의 유아 미술 감상교육 현황 및 인식의 결과에서도 미술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교육과 감상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오연주(2005)의 연구에서도 미술 감상을 위한 자료부족과 감상수업 지도법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술 감상 활동은 표현활동과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상 활동을 통해서 유아에게 미적인 감각과 태도를 길러주고 자연과 생활주변에서 예술적인 요소와 미적 요소를 찾아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미적 생활을 영위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2. 유아의 미술관 관람

1) 미술관 관람의 중요성

미술관은 단순히 예술품을 수집 보존하는 것 뿐 아니라 역사적 유물이나 자료들을 연구하고 예술적 가치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관람자들의 사회 심리적, 정서적 즐거움을 주는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관리하는 항구적 시설이다(Giraudy & Bouihet, 1991). 미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대중을 위해 전시하고 교육하는 사회교육기능을 가지며 미적 우수성을 가진 수준 높은 작품을 많이 수집하고 전시한다. 미술관은 상상력, 예리한 관찰력, 풍부한 사고력을 자극하며 다른 문화, 다른 시대, 세계의 관점, 미적 표현에 대한 감상을 촉진하는 장소이다(서명애, 2003).

미술관이 미적 감수성, 시·지각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미술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함 향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때 미술관에서의 감상교육은 중요하다.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감상 활동은 책이나 사진 또는 인터넷의 자료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미술관 관람은 직접 예술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아들이 작품을 눈과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며 생각하고 만져볼 수 있는 참여의 과정과 기회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미술관 관람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70년 이후 미술교육에서 표현보다 이해와

감상을 중시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술교육 방법을 찾게 되었고 새로운 미술교육방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이 미술관이기 때문이다(이경진, 2005). 둘째, 미술관은 유용한 교육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원영, 1997). 또한 2000년도부터 적용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표현생활영역의 내용으로 탐색, 표현, 감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교육부, 1998) 감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미술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유아들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술관은 유치원이나 다른 사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질감이나 색깔, 주위환경과 크기가 다른 느낌 등을 원작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생생한 교육은 미술작품을 대하는 태도,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교육자 듀이(Dewey)는 '경험'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사물과 직접 접할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둘째, 미술관을 통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 다른 발달영역과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사전에 교육계획을 준비하고 실시한다면 미술과 신체활동, 미술과 언어활동 등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발달영역과의 통합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교육활동에 학부모, 교육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미술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육현장이 될 수 있다. 교사와 유아, 유아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넷째, 유아 중심, 생활중심 교육이 가능하다. 활동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미술관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다섯째, 자연과 예술, 역사가 조화된 미술관의 환경을 접할 수 있다. 보통 미술관의 특성상 도심 속의 휴식처가 될 만큼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의 아름다움과 조각공원등의 야외미술관의 자연과 예술품의 조

화를 통해 유아들의 미적 안목을 길러줄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이원영, 1997).

장순미(2007)는 유아들의 미술관 방문활동이 미술표현력과 미술 감상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으므로 유아가 일상에서 미술관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미술관과 유치원과의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술관 관람을 통한 유아와 예술품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높아진다면 미술관을 활용한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강윤정, 2003). 미술관 관람을 통한 감상활동을 한 유아들은 세부적인 표현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감상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김연, 2002; 라현숙, 2006; 배정미, 2006; 서명애, 2003) 미술관과 유치원을 연계하여 활동하였더니 유아들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작품에 대한 태도나 표현에 있어 자신감과 흥미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박승순(2006)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모든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들에게 미술관에서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아에게 미적 안목을 길러주는 것 뿐 아니라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며 작품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술과 문화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탐구하게 하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장으로서도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하므로 정기적인 미술관 관람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미술관 관람에서의 교사의 역할

유아를 위한 미술 감상 교육의 지도방법에는 보편적인 방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는 보는 사람의 감상능력에 따라 발견할 수도 있고 전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가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유아의 발달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방법을 무엇인지 먼저 결정하고 적용해보아야 한다(차영순, 1982).

Eisner(1985)는 효과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는 미술경험과 교육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미술의 구조를 생각하며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교육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교수활동은 융통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목적 지향적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는 유아에게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유아들이 미술 감상 활동을 하면서 사고와 이해를 확장시키도록 개방형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아들의 개인차를 알고 존중해주면서 유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발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유아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격려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박영아, 2006), 유아들이 작품과 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순미, 2007). 그리고 교사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유아의 그림 표현과 감상의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정미경, 1999).

박승순(2006)은 교사가 미술관 작품에 대해 관찰을 하도록 세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유아가 좀 더 주의 깊게 작품을 관찰하고 작품과 상호교류하

면서 다양한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반응유형과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에 대한 충분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 과정에서 유아들의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감각적, 신체적, 정서적 능력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들의 인지적, 기술적, 정서적, 심미적, 신체적 성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한 활동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아는 스스로 활동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교사가 어떻게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따라서 인지적 물리적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사는 다양한 작품에 대하여 감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유아들이 바른 감상태도를 가지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알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장순미, 2007).

교사는 미술관의 전시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며 유아들에게 적합한 전시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단순한 관람으로 끝나지 않고 탐색, 표현활동으로 통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감상을 할 수 있으려면 전달자인 작가, 매개물인 미술작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조직하고자하는 사람인 촉진자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Cole & Schaefer, 1990, 재인용). 교사가 바로 그 촉진자의 역할 즉 작품과 유아를 만나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박화윤, 2007). 그리고 미술의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 미술관에 노출된 유아가 미술관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유아들이 작품을 처음 보는 순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게 하여 유아의 감상능력을 향상시켜 준다(장순미, 2007).

유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제안이 수용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생각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창의적 사고와 반응을 가

능하도록 할 때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박승순, 2006). 그러나 교사들은 미술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유치원이 미술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유치원에서 미술관 연계하여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나 세미나를 통해 미술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지켜야할 예절에 대해서도 유아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어떠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관람예절을 잘 지키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미술관의 여러 작품을 유아들이 편안하게 감상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원해야 하며 유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토대와 동기유발을 해는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3. 선행연구

미술관과 관련된 최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감상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미술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고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수가 적었다. 유아 미술 감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감상교육의 현황과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와 특정미술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구, 감상활동을 통해서 정서지능, 창의성, 미술표현능력, 감상능력, 자아존중감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그리고 미술관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감상교육의 현황과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로 이인숙(2001)은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57.7%)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미술 감상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술 감상 활동 자료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유아 미술 감상교육을 위하여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인적 미술 감상 지원을 알아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진희(2000)는 미술 감상 활동의 내용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형작품 접하기'를 가장 미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고 미비한 이유는 '재료나 활동계획안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유혜정(2004)은 표현생활에서 감상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나 감상활동을 주1회 10분미만 정도로 그치고 표현활동을 위한 감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김보영(2006)연구를 보면 탐색, 표현, 감상이 균형있게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표현생활영역의 수준별 내용인 탐색, 표현, 감상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미술 감상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감상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연구가 있었다. 미술관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술교육분야에서 미술관 또는 박물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연구물은 적었다. 오주연(1999)은 미술관외의 박물관에 관한 연구로 국악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기관의 박물관 활용 프로그램 모형개발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가장 선행되었던 연구라고 할 수 있었다.

미술관 관람을 통한 감상활동에 대한 연구물 중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많았고 유아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미술관 관람활동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실시한 두 편의 연구가 전부이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관 프로그램이나 연계활동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배정미(2006)는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10주간 10회에 걸쳐 미술관 관람활동 후 미술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미술 활동 과정과 표현 능력 및 감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미술활동과정이 지속적인 미술 감상교육이 미술작업의 지속적인 선호와 그림에 대한 식별 능력, 그리고 화가의 그림들을 동일시하는 능력이 발달하였고 미술표현능력의 향상은 유아들이 단순한 모방의 과정이 아니라 감상한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재해석의 과정이며 미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미술 감상능력의 향상은 유아들이 미술관관람을 통하여 작품을 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게 되며 자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장순미(2007)는 만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전활동, 미술관 방문, 사후활동의 순서로 진행한 미술관 방문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림감상에서 관찰 및 묘사력과 주제 표현의 의도에 대한 이해력, 미술요소와 재료에 대한 탐색등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미술관을 방문하여 감상활동을 돕는 사전활동은 유아의 감상활동에서 시 지각 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문 후 사후활동은 유아의 경험과 사고를 반영해 표현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미적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림감상활동은 유아의 발달에 적절하게 실제 작품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상활동이 되어야 하며 탐색, 표현, 감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미술관의 프로그램과 개발 및 연계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승순(2006)은 유치원과 미술관의 연계교육활동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2주간 실시한 결과 미술관과 유치는 상호보완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얻기 위한 연계학습의 장으로 미술관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술관은 교육적 가치 기준을 둔 전시회 유치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술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확충 및 유아전담 에듀케이터 배치로 유치원의 미술관 활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최혜경(2006)은 만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박물관교육과 유아 미술교육을 연계하여 유아미술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 제시하였다. 그 결과 현장 적용 가능한 탐색활동을 강화한 유아미술의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의 실행방법을 제안하였다. 강윤정(2006)은 성곡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대상과 미술관의 환경, 목표 설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지원(2007)은 부산지역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김효진(2006)은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유아 교육기관의 미술관 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실시하였고 최민수, 이형선(2004)은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박물관 프로그램을 실시 적용하여 미술 표현과 감상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서영숙, 김진숙(2005)은 인물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미술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고 이주현(2006)은 유아를 대상으로 국내외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현진(2006)은 여러 곳의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방안을 연구하였고 김희진(2002)은 국내외 어린이 대상 미술관 프로그램현황을 분석하였고 윤현진(2006)은 서울지역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감상활동을 통한 여러 발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자(2007)

는 유아들끼리의 협동학습을 기초한 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표상능력과 정서지능의 향상에 효과적이고 그림 표현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정혜정(2003)은 입체조형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은 유아의 입체, 평면 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가현(2005)과 최경선(2001)은 추상화, 인물화를 감상하는 활동은 유아의 그림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전주희(2004)의 연구를 보면 통합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탐색, 표현, 감상을 균형적으로 통합시킨 미술활동은 창의성, 정서지능, 공간능력, 미적반응과 표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경수(2006), 안진아(2003), 윤정숙(2005), 이수연(2002)의 연구 등이 있다. 이미자(1998)은 그림 감상 활동은 유아의 그리기 표현과 태도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주제에 따라 선정된 명화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 활동 과정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미술표현능력, 감상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정미정, 2003). 명화감상활동 또는 명화감상활동과 연계되는 활동, 명화감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는 미술 활동 과정과 창의성, 이미지 표현, 표현방법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위환, 2005; 장혜진, 2006; 지옥녀, 2003; 박민형; 2007). 그리고 명화감상을 했을 경우는 유아들이 다양한 시각적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하여 내면화된 생각들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형태를 조직하며 조화로운 색을 사용하면서 미술을 창의적으로 즐기는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윤내경, 2000; 임경애, 2000; 정미정, 2003; 최경선, 2000; 홍미숙, 2001).

마지막으로 미술관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이종진(2000)은 유아의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들에게 미술관 관람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고 바람직한 미술관교육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

진희(2000)는 어린이 미술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주현(2006)은 국내외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오연주(2005)의 연구에서도 미술 감상을 위한 자료부족과 감상수업 지도법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작품의 안내와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의 관한 연구로 류재만(2005)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문 도슨트를 배치하여 교육을 더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했고 특히 어린이 전문 도슨트 양성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유아미술 감상지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연구(김문자, 2004), 유치원교사의 유아 미술 감상교육 현황 및 인식의 결과에서 미술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교육과 감상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김보영, 2006; 유혜정, 2004).

Ⅲ. 연구방법

1. 실행연구

실행연구란 객관성이나 이론정립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반성적 실천의 자기 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실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이용숙 외, 2005). 즉, 실행연구는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반성, 숙고, 탐색하는 실천적 연구이다(박영미, 2009, 재인용). 이러한 연구방법은 교수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에게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탐구활동으로서 여기서 얻은 정보는 통찰을 얻거나 반성적 실천을 전개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 환경의 변화, 학업 성취의 향상,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집되는 것이다(Mills, 2007).

교사는 연구자로서 자신이 실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을 개선하면서 결과를 적용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Mills, 2007). 특히 교사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연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Stringer, 2004).

종합해 보면 실행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실천을 중시하고 참여적이고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실행 및 관찰을 거쳐 재계획하는 순환과정을 반복한다(박영미, 2009).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여러 해 동안 유아들과 함께 미술관 견학을 다녀오면서 미술관 관람 활동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운영하지 못했다. 연구자는 유아들과 미술관 관람을 한 번 다녀오는 일회성의 무의미한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미술관 관람 활동을 교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전개하며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와 교육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미술관 관람 활동에 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2. 연구대상

1) 사랑유치원¹⁾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랑유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이다. 사랑유치원은 신도시에 있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 동사무소, 구립도서관 등이 있다. 사랑유치원은 유아들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돕고 유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습득, 즉 자율성을 길러주며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랑유치원은 유럽엔틱풍으로 지어진 하얀색의 2층 단독 건물로 1층에는 원장실과 3개의 교실과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만5세 3개 학급과 교무실 및 화장실이 있다. 지하는 강당과 주방, 미술실, 자료실로 구성되어있다. 유아들이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실외놀이터는 유치원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쁜 텃밭과 꽃밭, 복합놀이기구, 모래놀이터가 있다. 학급 구성

¹⁾ 모든 유치원, 유아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은 만 5세반이 세 반, 만 4세 두 반, 만 3세 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아는 모두 근처 아파트에서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원을 하고 있고 하루일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이다.

교사는 총11명으로 원장, 원감, 교사 5명, 보조교사 2명, 영어교사 1명, 미술교사 1명이 있다. 각 반 담임들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 하였고 4년 ~ 1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랑유치원은 단원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미술에 대해 특별하게 강조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만 5세반의 현장학습으로 미술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2) 맑은반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인 맑은반에는 만 5세 유아 22명이 채용하고 있고 교실은 30평 정도의 크기로 2층에 있다. 맑은반은 연구자인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고 보조교사 1명이 있다. 교실이 정사각형으로 되어있고 두 벽면에는 큰 창문과 블라인드가 있어 밝고 환한 분위기의 교실이며 채광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다. 교실 벽은 하얀색이라 깔끔한 느낌을 받으며 벽면에는 유아들의 조형작품이 전시되어있고 교실바닥은 원목마루로 되어있으며 온돌난방시설과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다. 흥미영역은 쌓기 놀이, 역할놀이, 수·조작, 과학, 언어, 음률, 조형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제에 맞는 교재·교구가 제시된다.

맑은반 유아들은 9시부터 등원하기 시작하고 복도에 있는 신발과 가방장에 옷과 가방을 정리하고 원아수첩과 언어전달장을 들고 교실에 들어와 날짜판을 보며 원아수첩에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바구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놀이하고 있다가 2호차 코스의 유아들까지 등원하면 쌓기놀이 영역의 카펫에 모인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하루일과와 자유

선택활동의 놀이를 소개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놀이계획평가 화일에 오늘하고 싶은 놀이를 놀이 소개판을 보면서 계획하고 다시 파일을 정리한 뒤 놀이이름표를 사용하면서 놀이를 한다. 실내 자유선택활동은 대략 1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교사는 정리하는 시간을 5분전쯤 미리 알려준다.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시간이 끝나면 놀이계획평가 화일에 놀이평가를 하고 우유를 먹은 후 쌓기놀이 영역의 카펫에 모인다. 그리고 이야기나누기, 신체활동, 게임, 음률활동, 조형활동, 과학활동, 동시감상, 요리활동 등의 대그룹활동을 한다. 점심식사 준비는 12시 20분경부터 하며 1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유아는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이 닦은 후 정적인 활동의 교구나 책을 읽는 등의 놀이를 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실외놀이를 주로 하며 그 후 동화를 듣고 2시 20분에 귀가하게 된다.

표 1은 맑은반의 하루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맑은반의 하루일과

시간	활동
9:00~ 9:20	등원 및 조용한 놀이
9:20~10:20	자유선택활동
10:20~10:40	정리정돈 및 놀이평가, 간식
10:40~12:30	대집단활동
12:30~1:30	점심식사
1:30~1:50	실외놀이
1:50~2:10	동화듣기, 귀가지도

맑은반에서는 조형활동을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대집단 활동시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는 생활주제와 관련된 미술활동을 주 2회 정도 한다. 교사는 조형영역 벽면에 활동할 작업순서도를 붙여두고 재료를 책상 위에 마련 해두어 유아 스스로 활동하도록 한다. 또한 나머지 주 3회는 조형영역 교구장에 구비되어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만들고 꾸미고 그리는 활동을 한다. 대집단 활동 시간에는 자유선택활동에서 하는 조형활동 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이야기나누기나 충분한 자료탐색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가 선별하여 활동을 계획하며 모든 유아들이 당일 집으로 가져가도록 계획한 활동도 대집단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학습은 생활주제와 관련된 장소로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술관은 생활주제와 특별하게 연관되지 않으므로 교사는 연초에 미술관에 가게 될 날짜와 장소를 계획하여 정해진 날짜에 유아와 함께 다녀온다. 그리고 교사는 미술관 관람이 생활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다녀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맑은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상활동은 교사가 주제와 관련된 명화를 선정하여 조형영역의 벽면에 게시해두고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명화에 따라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지어보는 등의 활동을 확장하여 전개한다.

3) 유아들

맑은반은 남아 8명과 여아 14명, 총 22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들의 사랑유치원 입학 전의 경험을 살펴보면 사랑유치원 만 4세반에서 재원한 유아가 11명이고 다른 유치원에서 전학 온 유아가 3명, 어린이집에 다녔던 유아는 7명이며, 미술학원에 다녔던 유아는 3명이다.

맑은반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약 20%가 고졸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유아는 3명이며, 나머지 19명 유아의 어머니는 전업 주부이다. 또한 유아학비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6명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행연구로 초기단계, 초기단계의 평가, 중기단계, 중기단계의 평가, 후기단계, 후기단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맑은반의 연구일정

단계	기간	실행 절차	
계획	2008년 7월1일 ~ 2008년 9월 20일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 미술관 조사, - 2007년에 실시한 미술관 견학에 대한 현황분석 - 연간 미술관 견학에 대한 계획 분석	
실행	초기	9월21일 ~10월 13일	맑은반 미술관 관람 활동 계획 및 실행, 문제점 파악, 중기단계의 실행 방안 모색
	중기	10월 17일 ~11월 6일	중기단계의 미술관 관람 활동 계획 및 실행 중기단계 평가 - 문제점 분석, 실행방안 모색
	후기	11월7일~ 12월11일	후기단계의 미술관 관람 활동 계획 및 실행 후기단계의 평가
평가	12월 12일~	초기, 중기, 후기의 실행에 유아 및 교사의 변화 분석	

연구를 실행하기 전인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0일까지는 관련 참고문헌과 유치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술관의 위치와 소요시간,

작품전시 일정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여부, 도슨트의 안내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실시한 미술관 관람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일교육계획안을 살펴보고 2007년도 사랑유치원에서 실시한 미술관 견학에 대한 현장학습 일지를 살펴보고 연구자의 학급 외의 다른 학급 담임이었던 교사와 면담도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다. 미술관 관람 활동은 미술관 관람 전날에 조형 활동, 이야기나누기, 과학실험, 신체활동 등의 사전 활동을 실시하고 다음 날 미술관 관람을 한 후, 관람을 한 다음 날에 사후활동으로 주로 조형 활동을 진행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미술관 선정은 유아들이 다녀오기에 적당한 거리에 있는 주변 미술관의 전시일정과 전시작품,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그러나 관람 장소와 전시회 일정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존에 계획했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가고 그에 따른 미술활동도 다시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연구실행 일정을 살펴보면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11일까지 1주 또는 2주에 한 번 총 8회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였다.

1회기의 실행 과정은 9월 29일 ~ 10월 1일까지 K미술관의 추상화 감상하기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였다. 칸딘스키, 몬드리안의 그림과 책을 이용하여 이야기나누기를 하고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조형영역에서 호일데칼코마니, 언어영역에서 명화와 관련된 작은 책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다음날 미술관에 가서 추상화를 감상하였으며 사후활동으로 몬드리안 따라 해 보기 활동으로 몬드리안의 작품 '구성'을 유아들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그림을 바꾸어 보는 활동을 하였다.

2회기는 10월 6일 ~ 10월 8일까지 G대학교 박물관의 민화 감상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김홍도와 신윤복에 대한 책을 이용하여 이야기나누기를 진행하였고 미술관에서 민화를 감상하고 수묵채색화 그리기를 사후활동으로 실시하였다. 1, 2회기의 초기단계 실행의 문제점으로는 미술관에 가서 관람

을 할 때 유아들에게 교사가 계획한 미술작품만을 감상하는 것을 요구하기에는 주변의 많은 작품이 있었다. 교사가 계획한 작품외의 다른 미술 작품들도 관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작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가 견학 가는 미술관에는 있는지의 여부, 도슨트가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또한 유아들이 직접 작품을 직접 관람 하고 나서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눈으로 보았던 것과 유아 자신이 표현해보면서 소극적이거나 좌절감을 느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기단계의 연구를 실행하였다.

중기에서는 10월 17일 ~ 11월 6일 까지 3번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였다. 10월 20일~10월 22일까지는 S아트센터의 수채화전을 감상하였다. 사전활동으로 유아들은 유화와 수채화물감을 과학실험을 통하여 비교해보았고 미술관 관람을 한 후 사후활동으로는 수채화를 직접 그려보았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화가를 초대하여서 유아들이 화가에게 궁금한 점을 여쭙어보고 직접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 10월 27일~10월 29일까지는 L미술관의 설치미술을 감상하였다. 설치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는 사전활동을 진행하였고 미술관 관람을 하고 사후활동으로 미술관에 있던 설치미술작품을 똑같이 만들어보는 것과 다른 설치미술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11월 3일 ~ 11월 5일까지는 G미술관의 어린이 벽화를 감상하였다. 사전활동은 여러 장소의 벽화의 모습을 다양한 사진으로 살펴보고 미술관 관람을 하고 사후활동으로 미술관에서 보았던 벽화의 방법을 그대로 재연해보기로 하였다.

후기단계는 중기단계를 거치면서 미술관을 가서 유명 화가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아들 작품을 작은 미술관에 직접 전시 해보고 학부모들까지 초대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게 되었다.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미술관에 들러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부모에게 도슨트의 역할도 하

게 되었다. 전시가 끝난 후에는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정리해보는 과정을 하게 되었다. 후기단계에서는 중기단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중기단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보완하여 실행방안을 모색하였다. 11월 15일 ~ 11월 17일까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였고 11월 24일~11월 26일까지는 H미술관에서 그동안 미술관에서 보았던 추상화,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야외조각, 수채화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관람 할 수 있었고 팝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도 경험하게 되었다. 사전활동은 교사의 계획 없이 유아들이 인터넷을 통해 H미술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람하게 될 작품을 살펴보거나 예측해보았고 사후활동으로는 동판화 제작하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2월 8일 ~ 12월 10일까지는 Y디자인 미술관에 가서 디자인 전시를 감상하였다. 사전활동 역시 교사의 정해진 계획은 없었고 이야기나누기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였다. 사후활동은 유아들이 디자인 모자를 이용한 무언극으로 진행하였다.

맑은반에서 실시한 미술관 관람 활동의 내용은 표3과 같다.

<표 3> 맑은반에서 실시한 미술관 관람 활동

단 계	실행 차수	활동기간		활동내용
초 기	1차	9월 29일 ~ 10월 1일	사전활동	추상화가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자유선택활동: 호일데칼코마니, 작은 책 만들기 활동
			본활동	K 미술관 - 추상화감상
			사후활동	몬드리안 '구성' 바꾸어 보기
	2차	10월 6일 ~10월 8일	사전활동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감상
			본활동	G대학교 박물관 - 민화감상
			사후활동	수묵채색화 그리기
중 기	3차	10월 20일 ~10월 22일	사전활동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 비교하기

후 기	4차	10월 27일 ~ 10월 29일	본활동	S아트센터 - 수채화, 야외조각전감상	
			사후활동	화가초대하기, 수채화그리기	
			사전활동	설치미술에 대해 조사하기	
	5차	11월 3일 ~ 11월 5일	본활동	L미술관 - 설치미술 감상	
			사후활동	설치미술 만들기	
			사전활동	벽화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후 기	6차	11월 15일 ~ 11월 17일		우리들의 미술관 - 전시회 하기
		7차	11월 24일 ~ 11월 26일	사전활동	야외스케치
				본활동	H미술관 - '아시아를 이끄는 힘' 감상 -팝아트,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야외조각, 수채화, 유화, 섬유미술등
사후활동				동판화 제작하기	
8차		12월 8일 ~ 12월 10일	사전활동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기	
			본활동	Y디자인미술관 - '일상속의 디자인의 경 이로움' 감상	
	사후활동		디자인모자로 무언극하기		

4. 자료 수집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조직의 문화나 특정 집단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상황과 활동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다(이용숙,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교사이며 실행연구로 진행하게 되므로 연구자가 속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참여형태로 관찰하였다.

맑은반의 담임인 연구자는 미술관 관람 활동인 미술관 관람과 사전, 사후 활동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였고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유아와 도슨트와의 상호작용도 관찰 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2) 심층면담

대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체보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숙, 2005).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전, 후 또는 사전, 사후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집단면담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시간이나 실외놀이시간 또는 미술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유아에게 미술관에서 보았던 작품에 대한 미술적 요소, 표현방법, 감상하고 나서의 느낌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유아들에게 미술관 관람과 사전, 사후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점과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있으면 기록하였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에게는 그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부모면담은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전시회에 초대받은 학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유치원으로 초대했던 화가와 미술관에서 도슨트와의 면담도 진행하였다.

3) 비디오 촬영과 사진촬영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는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장면 증거,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서 오감을 사용한 즉각적인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사진과 비디오녹화로 보완하여 지나가 버린 자연사건과 현상을 기록하여 연구자가 다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이용숙,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면서 작품 뿐 아니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도슨트의 상호작용과 감상하는 과정, 사전, 사후활동 진행 과정을 비디오 촬영하여 전사하고 사진자료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의 미술 결과물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사진자료는 연구자의 지나간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록한 사진자료와 녹화자료는 전개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여 총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활동 양상과 갈등해결 방안으로서의 전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재해석 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과정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 번 활동 때 적용하고 보완하였다.

4) 저널

저널쓰기는 유아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담론을 통해 교수·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은혜,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므로 연구자는 저널쓰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하여 좋은 자료수집방법으

로 활용하였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는 8회기의 과정의 매회기마다 사전, 본, 사후활동을 분리하여 따로 기록하기도 하였고 별다르게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본, 사후활동을 한꺼번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활동과정을 촬영한 녹화내용을 전사하기 전 저널을 먼저 기록하여 교사가 다시 한번 진행했던 활동 과정을 돌아보고 미처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녹화자료로 남기지 못했던 교사의 생각이나 의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도 떠올리면서 기록하여 활용하였고 촬영한 것을 전사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이용한 자료는 표 4와 같다.

<표 4> 수집한 자료

자료수집의 종류	자료수집 방법
현장기록	현장노트, 캠코더로 활동 녹화, 사진촬영, 전사노트
저널	연구자저널
면담기록	유아, 학부모, 도슨트, 화가와의 면담 기록지 캠코더로 면담상황 녹화,
기타	미술관의 도록, 미술관의 전시 카다로그, 전시회의 방명록 유아의 작품 결과물, 작품 사진, 화가가 그린 작품

5. 자료분석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미술관 관람과 사전, 사후활동의 전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 및 여러 가지 결과물, 유아관찰 기록지, 연구자 저널, 현장노트 등을 가지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의 연구문제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하고 분석했던 자료로는 미술관 관람 활동 녹화자료, 사진자료, 연구자 저널, 유아와의 면담이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다음번의 활동계획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의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들은 참고문헌이나 지도교수의 조언을 참고로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효과적인 미술관 관람을 위한 개선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의 과정은 미술관 관람 활동 녹화자료를 전사한 것, 유아와 학부모와의 면담 및 작품의 결과물, 교사의 현장노트, 연구자 저널, 사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공통되는 부분들을 유목화하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한 것은 하위범주로 나누어서 변화의 추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 및 자료들을 거듭하여 분석하여 1,2,3차에 걸쳐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행에 따른 실행과정 및 결과 해석, 분석에 관하여는 유아교육의 석사학위를 수여한 동료들과의 토론이나 조언을 받았으며 지도교수의 조언 및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연구자는 만 5세 맑은반에서 실시한 미술관 관람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술관 관람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들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맑은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만 5세 맑은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관람 활동은 전시일정과 장소에 맞추어 유아들이 이동하기에 멀지 않은 곳을 교사가 선정하여 미리 연 강 현장학습 계획안에 계획한 후 날짜에 맞추어 다녀온다. 또한 미술관 관람을 하는 날 교실에서 사전에 가게 되는 장소와 지킬 약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한 후 출발한다. 관람을 한 후 다시 돌아와서는 사후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후활동을 하게 될 경우는 다녀온 장소와 가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또는 간단히 그림을 그려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보다는 교사가 계획한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에 유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유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맑은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2008년 9월 29일 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2회의 실행과정을 통해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1) 주제에 관련된 것만 보기를 원하는 교사

vs 흥미 있는 것에만 눈 돌리는 유아들

교사는 미술관에 가기 전에 어떤 작품을 감상하게 될 것인지 미리 답사를 다녀오고 작품 감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전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미술관 관람활동을 마친 후에는 관련된 미술활동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미술관 관람 활동은 추상화를 감상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관람을 위해 K미술관으로 갔었다. K미술관에 도착하자마자 미술관 입구에서부터 야외에 펼쳐진 다양한 조각상과 화려한 전시홍보 또는 자연물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유아들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한 흥미거리를 찾고자 하였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움직이는 미술작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실내로 들어가서 추상화작품을 감상해야한다는 교사의 생각과 의도대로 관람이 진행되지 않았다. K미술관의 실내에는 7개의 전시실이 있었고 원형미술실과 어린이 미술관, 야외조각이 있어 각 전시실마다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보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전시실 한 곳만 들러서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주변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작품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으므로 교사는 추상화만을 감상하고자 하는 처음 계획했던 방향과 의도와는 다르지만 다른 전시실도 가서 보고 유아들의 다양한 질문과 반응에 적절한 답변이나 코멘트를 해야만 했다. 추상화 감상보다는 다른 것에만 유아들이 흥미를 보여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걱정과 염려도 되었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전시가 되어있는 미술관에서의 작품 감상에 대한 방법이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었다.

수민: 우와! 저거 재밌는 거다. 우와 저거 로봇이 움직여요 말해요.

재윤: 우와! 입이 움직여요.

수민: 입이랑 턱이 움직인다.

재윤: 저거 자동으로 움직여요. 머리도 움직여요,, 입을 벌릴 때마다 머리가 움직여요.

교사: 그럼 그건 제목이 뭐니?

수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교사: 그럼 저 소리는 뭐니?

혜원: 노래 소리요. 근데 워~~~그래요 웡~~~그래요.

수민: 걸어 다니진 못해요.

교사: 왜 저기에 있을까? 우리 얼른 들어가서 추상화작품을 감상해 보자.

수민: 이거 계속 보고 싶은데.

교사: 아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교사는 유아들과 미술관의 실내로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실내의 1층 입구 로비에 백남준의 '비디오아트'가 전시되어있었다. 유아들은 야외에 있던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비교하면서 움직이고 소리가 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리고 '이건 탑이다 텔레비전이 되게 크네' 라면서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에 눈을 떼지 못하여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K미술관 관람, 2008/9/30)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추상화를 감상하려는 목적으로 가게 된 K미술관에서 유아들은 미술관 앞 잔디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관심을 가졌다. 턱이 움직이고 노랫소리가 나는 조각상에 대해서 유아들끼리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미술관 입구에서는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전시가 되어있어서 유아들은 추상화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움직이는 신기한 작품에 더 끌리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은 미술작품을 감상하기 보다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주로 호기심을 가질 뿐이었다. 교사는 추상화를 보러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각상에 대해 궁금해 하는 유아의 말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만으

로 유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차단하고 정해진 전시만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유아들이 흥미 있고 호기심 있는 것만을 감상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다음은 K미술관에서 추상화를 감상하고 난 후에 기록한 연구자의 저널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아이들은 주로 추상화를 보면서 연상되는 물건을 유추해내기도 하였고 어떤 물건의 형태가 보이는지 여러 각도로 보려고 하였다. 제목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재미있는 발상이었다. 붓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서는 '멀리 있어서 먹물이 흐리게 보여요' 라던지 '살살해서 흐리게 보여요' 라던지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 그림의 색과 농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을 보면서 느껴질 촉감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생님 이거 까칠까칠 할 거 같아요” “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등. 그리고 멀리서 볼 때와 가깝게 작품을 보았을 때의 작품이 보이는 느낌이 달라서 가깝게 볼 때는 해 같고 멀리서 보니 블랙홀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또한 이것은 칼로 나무를 매끈하게 한 것 같아요. 나무판에 모래를 뿌려서 나뭇가지로 그린 것 같아요. 씨앗 같아요 등의 표현을 하였다.

유아들은 작품을 만지고 싶어 하고 가깝게 보고 싶어 했으나 각 전시장마다 철저히 손대지 못하도록 줄을 쳐놓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제지하였다.

(K미술관 관람 후 연구자 저널, 2008/9/30)

유아들은 작품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어떤 것이 비슷한지,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과 비교해보면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교사는 유아들과 사전활동으로 추상화에 대해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에 대해 함께 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과 유아들이 명화에 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화에 대해 접해본 유아들이 많았다는 것을 떠올리며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전체적으로 미술적인 요소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교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신기한 물건을 보면서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하는 곁핍기식의 호기심 정도의 상호작용으로만 그쳤다. 또한 유아들이 작품에 대한 느낌을 교사나 또래 유아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 한정되어

있는 어휘만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그쳐서 아쉬웠다. 좀 더 자세히 미술 작품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다양하게 감상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해보려고 한다는 점과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의 다양한 미적경험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진 1은 K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면서 야외조각을 보고 실내로 들어가려는 장면이다.



[사진 1] K미술관 입구 야외조각

다음 사례는 미술관 관람 2회기 때 G대학교 박물관에서 민화를 감상한 내용이다.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작품을 차례대로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감상을 하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처음 관람을 시작한 1층의 옥공예실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옥의 공예품에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전시물을 관람하는 내용이다.

형근: 선생님, 이거 옥이에요.

재윤: 어제 봤잖아요.

교사: 어제? 어디서?

형근: 유치원이에요.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보여준다)

교사: 그건 옥이 아니고 돌이네. 근데 옥처럼 생긴 돌이구나.

도슨트: 친구들 이건 배추모양인데 배추위의 벌레모습을 옥으로 만들었대요.

형근: 이걸 이상하게 생겼어.

재윤: 야 만지지마.

도슨트: 이걸 비너래요.

교사: 그래 비너로 써도 되겠다.
 형근: 이건 할머니가 꽃는 건데.
 소은: 우와! 이건 뭐야? 이쁘다.
 도슨트: 이건 장미꽃 모양이에요. 이거 보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옥이라는 보석을 지니고 산대요. 좋아하는 보석이겠지요? 2층에는 딴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을 소개해 주실거예요.
 재윤: 옥 이거 건강의 보석같아요.
 교사: 그렇게 생각했구나. 2층에도 다른 재미있는 그림이 있다.
 소은: 그림보다 보석이 더 재밌는데요.

(G대학교 박물관 관람, 2008/10/7)

민화를 감상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박물관이었으나 도슨트가 1층부터 3층까지 차례대로 민화 외의 모든 전시물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민화전시만을 볼 수는 없었다. G박물관에서는 작품을 감상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책이 있어 활동책에 따라 관람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슨트는 유아들에게 각각 활동책을 박물관 입구에서 모두 나누어 주었다. 활동책은 작품에 관련된 그림과 내용이 있어 작품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이 도슨트의 지시에 따라 스티커를 붙이거나 색칠을 하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감상을 해야 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박물관 내의 모든 전시실을 둘러보아야 했다. 도슨트는 1층에서 3층까지 각층별로 대기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는 층에서 전시를 감상하게 되면 안내하면서 소개해주었다. 민화전시는 2층이었는데 1층부터 순서대로 관람하면서 옥공예실부터 가게 되었다. 유아들은 옥공예실에 있는 청록색의 보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놓은 옥공예품을 보면서 신기해하였고 잘 다듬고 깎아 놓은 공예품의 빛과 색에 매료되었다. 유아들이 보석으로 다양한 것을 만든 옥공예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지 교사는 염려되었고 옥공예품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민화감상을 유아들이 재미있게 감상하게 될지, 그리고 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지도 걱정이 되었다. 아래 사진 중에서 왼쪽의 사진은 농기구와 관련된 물건이나

사진, 그림을 전시해놓은 3층 전시실에서의 관람하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1층 옥공예실에서 옥공예품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이 활동책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사진 2] 3층 농기구전시실관람



[사진 3] 1층 옥공예실 관람

미술관을 가기 전에 감상하게 될 작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여 미술관을 방문하더라도 미술관의 규모가 클수록 교사가 계획하여 보려는 작품 이외의 다른 종류의 다양한 전시와 관람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있어 유아들과 정해진 작품들만을 보기는 힘들었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모든 전시물을 모두 보도록 해야 할지 전시실이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 버릴 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되었다. 그렇게 교사가 정해진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감상하도록 한다면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저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2) 어떤 것을 택할지? : 도슨트의 안내 vs 교사의 안내

도슨트(docent)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실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안내자를 의미한다(류재만, 2005). 최근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도슨트가 많이 있어 전시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상세한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유아들이 단체로 미술관 관람을 할 때도 도슨트가 있어서 설명과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다.

1회기의 K미술관에서는 도슨트의 안내 없이 교사가 유아들을 직접 인솔하면서 함께 미술관 관람을 하였고, 2회기의 G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도슨트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퇴장할 때까지 계속 안내와 설명을 해주었다. 다음은 도슨트 없이 1회기 때 교사와 함께 유아들이 감상하는 사례이다.

우민: 선생님, 이거는 제목이 점이래요. 김창일이란 사람이래요.

교사: 그래, 제목이 점이네. 그런데 왜 점이라는 제목을 정했을까?

우민: 그냥 생각한 거 같아요.

시은: 점을 계속 찍은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점인 것 같아요.

교사: 점으로만 찍어서 그렸다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물감으로
그리면 제목이 물감일수 있나?

우민: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제목은 본 적 없어요.

교사: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제목을 결정 했을 거야.

시은: 그래도 점을 찍은 건 맞는데.

교사: 그래 시은이 생각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

(K미술관 관람, 2008/9/30)

위의 사례는 K미술관에서 전시작품을 관람하면서 작품의 제목과 작가의 이름만을 읽으면서 건성으로 지나쳐버리는 유아들이 많아 교사가 유아들이 자세히 작품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도록 시도하는 장면이다. 교사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작품을 가지고 유아들이 작가는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생각해보도록 유도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의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고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교육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제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과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제목을 결정한다는 것을 유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추상화 같은 경우는 의미전달이 유아들에게는 조금 어려웠다. 추상화에는 작가가 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보다 작가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를 유아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연구자인 교사가 유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고 함께 다양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감상할 수 있는 점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유아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추상화의 그림과 제목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도슨트가 할 수 없는 교사의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다음은 2회기 때 G대학교박물관에서 민화를 감상하러 갔을 때이다. 이때는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별로 도슨트가 있어 관람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슨트의 안내를 받았다. 다음 사례는 민화를 감상하면서 도슨트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도슨트: 이 그림에는 뭐가 있니?

유아들: 배추, 나뭇잎, 구름.

도슨트: 그래 이 그림 보이죠? 옛날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던 그림이래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민화라고 해요. 시작 민화!!

유아들: 민화.

도슨트: 너무 소리가 작아요.

유아들: 민화.

도슨트: 그래. 너희들 민화 좋아하지요?

유아들: 네.

도슨트: 근데 이건 민화예요.

(중 략)

재윤: 아까 1층에서 본 옥도 오래살고 싶어서 한 거 같아요.

도슨트: 질문은 이따 하세요. 먼저 들으세요.

교사: (재윤에게 다가가서) 그래 옥도 갖고 있으면서 오래살고 행복하고 싶어 하신 건데 이건 그림으로도 그러서 오래살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셨던 거래

도슨트: 그래요,,, 옥은 보석이에요. 친구 여긴 민화 보러왔어요.

까만색 노란 새를 활동지에 붙여보세요. 이건 뭐예요? 여기 새만

보세요. 예쁘게 붙였네. 아직 안 한 친구들은 기다려주세요.

(G대학교 박물관 관람, 2008/10/7)

위의 사례는 도슨트가 전시되어있는 작품을 유아들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이다. 도슨트는 자신이 준비해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준비해둔 방법과 진행에 따라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민화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재운이라는 유아는 1층의 옥공예실에서 본 것과 관련지으면서 옥이 장수하라고 옛날 사람들이 자주 지니고 다닌 것이 민화에 담긴 뜻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슨트에게 말하려고 하자 도슨트는 재운이가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재운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설명만 계속 해 나갔다. 또한 유아들은 도슨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않고 또래들끼리 민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유아들이 알고 있는 쉬운 지식들도 도슨트는 자신이 준비한대로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과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유아들이 질문을 하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함께 있던 교사는 유아들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해주거나 도슨트의 설명 중간 중간에 추임새 넣듯이 끼어들어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활동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정해진 틀에 맞춰서 감상하고 활동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음 사진은 도슨트가 유아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4]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감상하는 유아들



[사진 5] 민화전시실에서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도슨트였다. 도슨트는 감상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작품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들에게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어휘를 선별하여 쉽게 전달하는 능력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유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유아들의 흥미나 이해도가 많이 좌우되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질의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도슨트가 필요하다. 도슨트는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람자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류재만, 2005). 미술작품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교사라도 도슨트의 설명이나 안내 없이 교사로서 알고 있는 미술지식을 가지고 유아들에게 설명해주거나 유아들과 함께 작품을 보면서 또는 작품 옆에 있는 작품설명 내용을 보면서 감상하고 작품설명과 제목에 있는 어려운 어휘는 쉽게 풀어서 유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느끼고 감상해보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3층까지 모든 전시실을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둘러본 뒤에 교사는 도슨트에게 양해를 구하여 도슨트 없이 교사와 유아들만 다시 한 번 민화전시실을 찾아가서 감상하였다. 다음은 도슨트 없이 교사와 유아들만 민화를 다시 한번 감상하는 사례이다.

교사: 이 그림은 무엇으로 그렸을까?

혜원: 먹물이요. 붓이랑요.

교사: 자세히 보면 나무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알 수 있니?

새 그린 것도 보고, 어떻게 표현한 걸까?

지환: 물감이요.

교사: 그래 그런데 예전에는 물감이 없었을텐데 그림 어떻게 했을까?

혜원: 꽃잎으로 찌어서요.

(중 략)

교사: 어떻게 해야 될까?

혜원: 검정은 두 번 색칠 해봐요.

교사: 그럴까? 우리도 내일 한번 해보자.

(중 약)

교사: 이것도 화조도네, 좀 전의 화조도랑 다른 게 있는데?

소은: 꽃이 달라요.

혜원: 배추모양 꽃이 없어요. 새도 모양이 달라요.

교사: 그래, 그렇게 다르구나. 화조도 라는 같은 이름인데 다른 그림이네.

그런데 이 그림들은 어떤 종이에 그렸을까?

혜원: 낫은 종이요 누런 종이요.

(G대학교 박물관 관람, 2008/10/7)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는 유아들이 여러 종류의 화조도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제목이 같은 화조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유도하며 유아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유아들은 그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자세히 작품을 감상하였고 다른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바로 전, 도슨트가 유아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달했을 때는 유아들의 반응이 소극적이었으나, 교사가 이끌며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관람하고,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질문하고 답을 하였더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품은 어떤 색으로 되어있는지, 작가는 어떻게 그렸는지, 붓은 가늘고 굵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칠했는지,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교사는 유아들이 미술적인 요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유아들은 민화를 더욱 흥미롭게 감상하였고 작품을 더 깊숙하게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민화는 도슨트가 설명해주면서 감상했을 때보다 도슨트 없이 유아들과 교사가 감상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눈으로 볼 때와 직접 그려볼 때는 너무 달라!

미술관 관람 1, 2회기 동안 유아들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면서 재료의 특성과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품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유아들은 미술표현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추상화는 보기에겐 굉장히 쉽게 그렸을 것 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작품들도 있어 유아들은 쉽다고 생각하면서 유치원에 가서 해보자고 하거나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을 교사에게 하였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유아들은 제목과 작품을 계속 번갈아 보았다. 유아들은 작품만을 보아서 이해가 되지 않자 자연스럽게 제목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작품을 보고 제목을 번갈아 보는 형태를 취하면서 관람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렸는지 나름대로 분석해보려는 노력도 보였고 여러 가지의 제목을 보면서 흥미로워 했다.

유아들과 추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몬드리안의 '구성'을 감상하였다. 유아들은 네모벽지, 이불, 색종이 같아 보인다고 하였다. 크고 작은 네모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뭐야! 시시해'라고 하는 유아들도 있었고 화가가 금방 그렸겠다고 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작업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유아들이 있었다. 아마 추상화의 표현이 유아들에게는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만만해 보일 정도로 쉬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싶다.

(연구자 저널, 2008/9/29)

교사: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지환: 하얀 것으로 계속 짙은 거예요.

우민 (산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걸 나도 그리겠다. 근데 이걸 똑같다.

(중 략)

나희: 생각으로 그렸어요.

교사: 어떤 생각을 그렸니?

나희: 사람들이요.

예원: 검은색으로 네모모양으로 되어있게 그렸어요.

나희: 이것은 까칠까칠할것 같아요.

민서: 이건 말랑말랑 해보인다.

(K미술관 추상화 관람, 2008/9/30)

위의 내용은 K미술관에 가기 전 사전활동을 진행한 후의 연구자 저널과 미술관에서 추상화를 감상하는 과정이다. 추상화(抽象畫)는 사물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고 순수한 점, 선, 면, 색채, 형태 위주의 미술작품이다(김이경, 2003). 추상화 감상은 유아들이 자연대상물과 연관이 없는 형태와 색채의 효과를 경험하고 외적 세계의 모방을 초월하는 미술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적 구상화에 익숙한 유아들은 추상화가 자신의 그림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며 친근감을 갖게 되어 유아 자신도 화가처럼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정가현, 2005).

유아들은 추상화를 계속 감상하면서 확실히 작품의 의미 전달이 되지 않자 제목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림을 쉽게 받아들이는 유아도 있어 자신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손가락으로 허공에서 따라 그려보는 흉내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품을 한참 쳐다보면서 작품의 재질이 어떠한지 만져보고 싶어 하고 느낌을 말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추상화를 감상하고 난 다음날 사후활동으로 몬드리안의 '구성'이라는 작품을 재구성하여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고 난 후 연구자 저널의 일부분이다.

여러 가지 추상화를 접해보고 몬드리안의 '구성'의 작품을 바꾸어보는 활동을 했다. 유아들의 흥미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 검정색의 선을 검정색 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고 몬드리안의 '구성'작품에 나오는 색깔을 물감으로 놓아주어 면을 칠해보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검정색테이프로 자신만의 사각형프레임을 만들려고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였고 테이프를 붙이면서 상하좌우의 직선을 제대로 붙이지 않아 도화지를 다시 바꾸어 달라기도 하였다. 흰색면의 여백을 잘 살려서 칠하는 유아도 있었고 무조건 면을 다 채우려고 물감을 다 칠한 경우도 있었다.

(K미술관 관람 후 사후활동, 2008/10/1)

몬드리안의 '구성'이라는 작품에서는 검정색으로 굵은 선이 가로와 세로로 그어지면서 선과 선이 겹쳐지는 부분에 네모모양으로 크고 작은 면이 나타난다. 면 안에는 흰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다. 사전 활동에서도 유아들은 같은 '구성'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단순한 표현으로 느끼며 화가가 쉽게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생각이 연결되어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도 추상화는 정물화나 인물화같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도 금방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유아들의 관심과 자신감으로 사후활동을 '구성'이라는 작품을 재구성해보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검정테이프로 선을 만들도록 하였고 면은 물감을 묻혀서 붓으로 칠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물감으로 칠할 때는 테이프로 선이 되어있어 물감이 번지거나 흐르지 않아 색칠하고 나서 완성도가 높아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 유아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다른 유아들의 작품과 비교하고 자신의 것과 네모모양의 크기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색은 어떤 곳에 어떻게 칠했는지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검정색 테이프를 직선으로 도화지에 붙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도화지에 테이프가 휘어지거나 비뚤게 붙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원하던 그림이 아닌 방향으로 되어가는 것에도 속상해 하고 하기 싫어하기도 했다. 다양하게 표현된 유아들의 그림은 복도에 말리려고 바닥에 늘어놓았고 유아들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친구의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자유롭게 감상하기도 하였다.

추상화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지만(정가현, 2005), 본 연구과정에서는 추상화 감상활동을 통하여 화가들의 독특한 기법들을 쉽게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었고 유아들이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도 화가처럼 그릴 수 있고 편안하게 마음껏 그려본다는 여유로운 자신감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진은 K미술관 관람 후 사후활동으로 몬드리안의 '구성'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사진 6] K미술관 관람 후 사후활동을 하는 모습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해본다는 것은 유아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예리한 관찰력을 줄 것이다. 또한 제목을 보면서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아들이 추상화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추상화는 어렵다는 편견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감상하고 나서 미술 표현하는 과정 중에 유아들이 다양한 미술도구를 사용하고 표현을 하면서 미술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재료의 특징을 살리지 못해 나타나게 되는 실패의 경험들이 많았다. 그리고 유아들이 화가의 작품 수준과 자신의 작품 수준의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킬 것인가 고민이 된다. 예술작품과 유아들의 작품과의 상호 연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2회기 G대학교박물관에서 민화를 감상한 후 사후활동으로 수묵채색화를 하는 과정이다.

재형: 잘 안되요. 너무 굵게 나와요.

지환: 야! 그 붓은 좀 굵어. 얇게 나오게 해봐.

교사: 가늘게 라고 해야지. 형근이 붓도 가는것 같은데?

(중 략)

재윤: 이거 어떻게.(화를 냄) 그림. 요렇게요, 선생님?

교사: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네.

재윤: 근데 이렇게 하니 어제 본 것처럼 안됐다.

우민: 이 꽃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 버렸어요.

교사: 괜찮아, 너무 속상해 하지마.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흐리게
나올 수 있던 거니?

우민: 뽀족하게 그리면서 먹물을 별로 안 했어요.

교사: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우민: 색깔은 어제 화조도랑 비슷하지요?

(중 략)

지환: 우와! 재는 구름을 이런 색으로 색칠했어.

나희: 나는 주황색이 더 멋있어 보이거든.

수민: 야, 색이 섞인거야? 어느 게 진짜 분홍색일까?

(수묵채색화 그리기, 2008/10/8)

민화를 감상하고 난 후 다음날에 수묵채색화를 그려보기로 했다. 유아들은 화선지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도화지와는 화지의 특성이 많이 달라서 어떤 느낌일지 유아들은 기대감을 가지며 궁금해 하였고, 그림그리기 전에 화선지를 보여주자마자 빨리 직접 그리고 싶어 하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직접 그려 보면서 도화지보다 그리고 색칠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선지에 붓으로 그린 후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형태가 없어지며 번지고 색이 섞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은 그림을 망쳤다고 하면서 자신의 표현에 대해 자신 없어 하거나 속상해하기도 하였고 중간에 그만 하고 싶어 하면서 포기하려는 유아들도 있었다. 반면에 생각지도 않은 다른 그림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그림을 수정해 나가는 유아들도 있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결과와 유아의 흥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계기도 되었다. 전날에 감상한 민화와 자신이 그린 그림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색은 같은데 모양이 비뚤어져 있다거나, 보았던 민화와는 어떻게 달랐고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유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다음 그림은 수묵채색화를 하는 과정과 유아들의 결과물이다.



[사진 7] 수목채색화를 그리고 있는 유아



[사진 8] 유아가 그린 수목채색화



[사진 9] 유아들의 수목채색화 작품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작품 중에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표현된 그림들이 있다. 넓은 캔버스에 점으로 가득 찍어놓았다거나 캔버스에 한 가지 색을 전부 칠해놓은 것이나 작은 사람을 그린 그림이 캔버스에 가득 반복적으로 붙인 것과 같은 미술작품들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그림이라서 유아들이 보기에 무척 쉽게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금방 그려서 완성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직접 자신들이 그림으로 표현 해보면서 보는 것과 자신이 직접 그려보는 것이 무척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아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그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림을 교실에 전시해두어 친구들의 것과 비교하면서 감상해보았다는 것은 그림결과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성취감이나 보람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4) 영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 - 교사의 고뇌

미술관 관람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초기단계로 2차의 미술관 관람활동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자는 교사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에 미술관 관람을 해왔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던 방식으로 미술관을 선정하고 날짜를 정해 다녀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자 사전, 사후활동을 진행하였다. 어떤 작품을 보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감상하게 될 것인지는 사전답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전시 프로그램이나 작가, 전시공간만 사전 답사를 통해서 알게 될 뿐이다. 유아들이 교사가 감상하고자하는 미술주제와는 다른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일 경우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절히 조율 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사전답사를 하여 동선을 그려 보고 유아들을 수준을 고려하여 감상방법을 구상해 둔다고 할지라도 유아들의 발현적인 질문과 흥미에 적절한 대처와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였다. 교사는 계획하여 감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없더라도 유아들이 원한다면 모든 곳의 전시를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연구자인 교사는 감상하려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게 하고 많은 질문과 생각해볼 거리들을 제공하고 주제와 관련 없는 전시물을 관람할 경우에는 교사의 질문을 조금 적게 하고 반응만을 해주되 궁금한 질문을 유아들이 할 경우에는 대답을 해주었다. 이러한 교사의 태도가 적절할지도 많이 고민이 되었다. 또한 도슨트가 작품 설명을 하거나 안내 해 줄때는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도슨트가 제대로 유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도슨트와 유아들의 틈에서 가교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했다. 또한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없는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을 통해서 미적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2) 효율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을 위한 개선 방안

2회기의 미술관 관람 활동 초기 실행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관람하고자 하는 미술관에는 교사가 계획하여 감상하려는 미술전시나 작품만 있지는 않았다. 보려고 계획했던 작품 말고 다른 전시나 작품들에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관심을 교사가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미술관을 선정하면서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주제를 미리 염두에 두어서 사전활동에서 사후활동까지 계획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작품을 감상하려는 전시주제를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을 방문을 하게 되면 유아들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과 소리가 나는 것, 웅장하고 거대한 작품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하게 되었다. 유아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보게 하지 않고 유아들의 흥미를 무시한 채 교사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야되는지 갈등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사의 의도와 유아들의 흥미를 적절하게 조율하여 보기로 계획하였다. 교사가 계획한 전시주제의 작품도 관람하면서 유아들이 발현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흥미로워하는 것들도 교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미술작품을 모두 보고 즐기며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열린 공간으로 관람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전시주제를 관람할 경우에 교사는 유아들이 더 깊이 있고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람하는 방법을 사용해보거나 유아들이 흥미로워 할 전시주제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도슨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도슨트는 유아들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전시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아들의 수준이나 흥미와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설명하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도슨트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전달하거나 유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유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여 유아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호기심을 보일 때도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감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내해주는 도슨트의 역할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슨트가 어떤 부분까지 유아의 작품 감상을 도와줄 것이며 유아들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보 공유에 대한 교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미술관 장소를 선정할 때 전시주제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뿐 아니라 도슨트의 역할에 대한 점검하기로 했다. 미술관에 도슨트의 설명과 안내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두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슨트의 존재여부에 따라 담임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 미술관 관람하기 전에 계획하기로 하였다. 도슨트가 있을 경우에는 도슨트에게 관람하게 되는 유아들의 연령, 문화적인 경험이나 수준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미리 하고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까지 안내와 설명이 필요할지에 대해 함께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도슨트가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유아들을 인솔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야 되므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을 숙지하고 유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람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감상 할 때는 교사가 언어적인 자극을 주는 질문을 통해서 유아가 시각적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유아들이 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미술표현과 비교해 보면서 큰 수준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미술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자신있게 표현하기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그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아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했다. 유아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활동을 계획할 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작품을 보도록 계획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후활동을 교사가 직접 정해주는 것에서

유아들 스스로 찾아보고 계획하는 것으로 조금씩 바꾸어나가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 미술관 관람 활동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변화

1) 퍼즐조각을 맞추듯이 - 조금씩 달라지기

연구를 시작하여 초기 2회기의 실행을 통해서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을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들과 교사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안개를 헤치며 나오듯 - 희미하게 조금씩 알아보기

유아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도록 해야 하며 조형에 대한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미술재료의 기능적인 사용방법을 토대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문은식, 홍미숙, 2005).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작품을 눈으로만 보는 감상단계에서 더 나아가 눈이 아닌 마음으로도 감상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읽으려 하고 제목을 보면서 작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예술작품 뿐 아니라 교실에서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도 무엇을 그렸고 누가 그렸는지에 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그렸으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그렸을지 생각하는, 즉 그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작품에 담긴 속뜻을 읽어보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다. 다음은 수채화를 그리고 난 후 교사와 유아들이 평가하는 사례이다.

교사: 우리가 직접 수채화를 그려봤었지? 직접해보니 어때?

나희: 잘 했었는데 번져요. 괴물됐어요.

재형: 종이에 막 흘러요.

지환: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교사: 근데 왜 자꾸 번졌을까?

나희: 물이 너무 많아서요.

교사: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중 략)

시은: 계속 색깔이 섞여요. 그래서 검정색이 되었어요.

나희: 근데, 색깔이 서로 자꾸 붙어요.

지환: 저도 갈색으로 나무를 칠했는데 애벌레까지 번졌어요.

(S아트센터 수채화관람 후 사후활동, 2008/10/22)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들이 모두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그리는 사람의 표현과 방법에 따라 작품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채화 물감은 물의 양과 물감의 농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유아들은 연필로 그린 다음 색깔을 물감으로 칠하면서 그림의 형태가 없어지고 색이 섞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물감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칠한 그림끼리 번지게 되기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섞었을 때는 물감의 색이 아주 흐리게 되며 종이가 물에 너무 젖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아들은 의도했던 바와 다른 작품이 되었다고 속상해했다. 유아들이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수채화그리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붓으로 칠하는 과정에서 물감이 섞이고 원하는 색으로 나오지 않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표현해 보면서 수채화 물감과 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

다. 유화물감과 수채화 물감을 비교한 실험을 통해서도 물감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수채화를 감상하고 직접 수채화를 그려보는 경험을 통해서 유아들이 물감의 특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작가들의 작품과 자신이 그리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였지만 유아들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후활동을 마치고 유아들과 미술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희라는 유아는 그림이 번지거나 겹치는 원인이 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희의 작품을 보니 다른 유아들에게서 나타난 그림이 서로 번지거나 색이 흐려지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유아들도 다음에 다시 한번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칠하다가 번지게 되는 것이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술관 관람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재료에 대한 성질이나 각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은 교실 벽면에 수채화를 전시해놓은 것을 유아들이 감상하는 과정이다.

용호: 우리가 그린 거 여기에 있어 야! 민서야 이리 와봐.

민서: 어제 그린 거네. 붓으로 그린 거. 여기 김나희다. 새 줘 봐. 웃기다.

용호: 형준이는 힘을 너무 줬나봐. 번졌어.

민서: 그래 힘들었나봐, 나두 붓으로 그리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

수민: 너네 뭐해? 역할에서 서점놀이하자. 내 그림도 여기있네.

민서: 줘 이따 갈게.

수민: 알았어. 친구들이 다 열심히 그린거야.

교사: 나무를 그린 모습들이 다 어때?

용호: 여긴 휘어진 것도 있고 길쭉하게 된 것도 있고.

민서: 지환이것은 여기가 번졌어.

용호: 그래도 망친 건 아니잖아. 선생님, 민서가 지환이것이 이상하대요!

민서: 내가 언제 이상하다고 했냐?

(교실벽면 유아 작품을 감상하며, 2008/10/23)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미술관 관람을 통하여 감상하면서 유아들은 작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작품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다른 유아들의 작품을 평가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잘 그렸다 못 그렸다고 평가하면서 감상하였고, 친구들의 그림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표현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유아들은 친구의 그림을 보고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친구의 그림도 나름대로 그 친구만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므로 못 그렸더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아들의 인식이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유아들이 미술관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보고 작품의 제목과 작품 설명을 보고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화가들마다 개성이 있고 느낌과 생각이 다르므로 그림의 표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료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도 그림의 느낌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배워가는 것이 느껴졌다. 유아 자신과 친구의 그림이 서로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달라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친구들의 그림의 표현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상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다. 계속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해 나가면서 더 크고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즉 유아들이 미술적인 요소(선, 형태, 질감, 색)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알아내려는 시도가 유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교사가 유아들을 이끌고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그냥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아들끼리 감상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호기심을 느끼며 : 재료와 도구에 대한 탐색 시작하기

여러 작품을 미술관에서 감상하면서 유아들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연관이 지어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료의 특성과 기법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유아의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지적잠재력을 발견시키며 창의적 사고 및 표현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확신감과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송윤이, 2006). 유아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거나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재료에 대한 탐색도 하게 되었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칠했는지에 대한 유아들의 궁금증은 미술관 관람을 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화가를 초빙하여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작업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사례는 화가를 초대했을 때 화가가 사용하는 도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화가: 이건 나이프 칼이야.

재윤: 저건 째 바를 때 하는 건데.

화가: 그래 그럴 때도 쓰지.

지환: 진짜 칼 같다. 우와! 저걸로 쿠키도 자르면 좋겠다.

유나: 나무판에 문지르는 소리가 난다.

지환: 우와! 저걸로 쿠키도 자르면 좋겠다.

(중 략)

교사: 우와! 넓적한 붓을 쓰신다. 물감이 어떻게 나오니?

형근: 우와! 손이 빠르다. 우와! 와와 저 붓은 왕 붓.

민서: 와와와!! 금방 다된다.

화가는 캔버스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캔버스와 이젤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화가가 그리는 것을 본다. 화가가 하늘을 칠하는데 흰색물감을 사용하여 칠하는 것을 보면서 유아들은 흰색으로 칠하는 이유를 화가에게 질문하였고, 화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에 있는 하늘이 어떤 색으로 되어있는지 유아들에게 보라고

하며 하늘색은 무조건 하늘을 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무슨 색이든지 섞어서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유아들은 화가가 그리고 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진과 똑같이 그린다고 신기해 하였다.

(화가와 함께 한 활동, 2008/10/24)

유아들은 화가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화가가 사용하는 미술 도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 중에서 나이프를 제일 신기해 하였고 처음 본다는 유아들도 상당수 있었다. 유아들은 화가가 나이프를 사용하여 물감을 캔버스에 칠하는 과정을 보았다. 유아들은 나이프가 칼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주방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렸다. 나이프가 미술도구로 사용되어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기도 하고 캔버스에 넓게 칠하는 모습이 유아들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유아들은 나이프를 보면서 칼과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쿠키를 연상하면서 잘라보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화가를 초대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술을 하기 위한 재료와 도구가 다양하다는 것을 유아들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몇 가지의 물감만을 섞어서 많은 색을 만들어 칠하는 것, 사진이나 실제 풍경, 물건의 색도 섞어서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화가를 통해서 듣고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래의 사진은 유치원으로 화가를 초대하여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화가가 답을 해주는 장면과 화가가 직접 유아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사진 10] 화가를 초대하여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장면



[사진 11] 화가의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활동으로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

은 물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화가를 초대하기 전에 알았으므로 물이 없이 유화물감을 사용하며 그리는 것은 별다른 주목은 끌지 못했다. 그러나 화가가 넓적하고 가늘고 굵은 여러 가지 붓을 적절하게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붓의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은 유화물감과 수채화 물감을 유아들이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는 과정의 사진이다. 왼쪽의 사진은 같은 색이지만 종이에 칠해보면서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의 차이를 알게된 결과물이고, 오른쪽 사진은 유아들이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직접 종이에 칠해보았던 장면이다. 이 때 유화물감을 물에 섞어 보고 수채화 물감을 기름에 섞어보면서 물감의 성질이 서로 다를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 12] 같은 색의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



[사진 13]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칠해보는 유아

물감과 도화지 뿐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도구가 미술에 사용되고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또 다른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미술관 관람 활동과 화가를 초대하여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계속되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호기심은 조각상을 감상하면서 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다음 사례는 S아트센터에 가서 입체조형작품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이 작품의 재료와 만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민서: 선생님, 저건 쇠를 붙여서 철사를 꼬았어요.

형근: 장수풍뎅이를 만든 거 같아요.

민서: 우와! 어떻게 움직이냐?

형근: 선생님 저건 조립한 거 같아요.

교사: 그래 뭐로 만든 것 같니?
 용성: 컴퓨터 질 때 하는 거요.
 재운: 저건 파리에요. 우와! 가까이 가니까 날개가 움직여.
 교사: 재운이가 만지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재운: 저 카메라로 봤나 봐요. 저 카메라로 상대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불이 반짝이고 움직여요.
 교사: 왜 우리를 보니까 움직이니?
 재운: 로봇 같은 거지요.
 형근: 우와! 여기 전기줄이 있어요.
 재운: 전기로 하는 거네.,
 (중 략)
 재운: 자전거에 있는 바퀴줄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예요.
 교사: 그럼 자전거 몇 개가 필요할까?
 재운: 수 만개 억 개요.

(S아트센터 야외조각展관람, 2008/10/21)

조각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맑은반 유아들에게는 큰 사건이었다. 처음 K미술관에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의 잔디에 있던 '노래하는 로봇'이라는 조각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로봇의 턱이 움직이는 것은 유아들에게는 놀라웠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각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인다는 사실 이상으로 카메라의 장치가 연결이 되어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었다. 이는 움직이는 기계들도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클라이맥스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아래의 사진은 야외조각을 감상하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사진 14] 야외조각의 재료를 탐색하는 유아들



[사진15] 야외조각을 감상하는 유아들



[사진16] S아트센터 야외 조각전

유아들은 작품 옆에 길게 있는 전기선을 발견하면서 조각상을 전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소리가 난다는 원리를 찾아내었다. 여러 가지 기계가 연결되어 하나의 조각품이 완성된다는 사실은 유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키보드자판이나 자전거 바퀴의 연결 부분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계의 부속품을 이용하여 하나의 입체 작품으로 완성되어진 모습은 물감과 도화지와 찰흙을 사용해야 미술이라는 유아들의 고정된 생각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3) 생각을 끄집어내며 : 작품과 제목의 연관성 찾기

맑은반 유아들은 거듭되는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과 재료를 경험하였다. 유아들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은 제목과 작가를 일대일 대응하며 읽고 지나치는 미술 감상으로 시작하다가 중반부에 접어들어서는 화가는 왜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지, 색을 왜 그렇게 사용 했는지, 왜 그런 물건들을 작품으로 사용 했을지에 대한 화가의 깊은 생각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였다. 다음 사례는 S아트센터 수채화전시를 감상하는 과정이다.

수민: 이건 이름이 없어요. 그림 이름이요.

나희: 제목이지. 이름이냐?

유진: 그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색깔로 했어요.

수민: 이건 진짜 살아있는 거 같애. 이건 제목이 아름다움이다.

지환: 진짜 사람처럼 그렸어요.

교사: 사진 찍은 것처럼?

지환: 그렇진 않아요.

교사: 그럼 어떻게 그린 것일까? 선과색은 어때? 이런 색을 물감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지?

수민: 네. 섞어요.

나희: 나뭇잎의 색을 짜서 섞었을 거 같아요.

교사: 그래서 어떻게 그렸을까?

수민: 안에부터 그리고 밖으로요 연필로 그려요.

지환: (장독대를 그린 그림을 보면서) '옹기종기'라는 제목이 웃기다.

(S아트센터 수채화 감상, 2008/10/21)

맑은반 유아들은 모든 작품에는 제목이 있음을 알았고 작품과 제목을 쉽게 이해하기도 했고 또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작품도 있었다. 유아들은 작품의 제목을 서로 번갈아 보면서 제목과 작품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과 작품을 감상하면서 화가는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생각해 보는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은 실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흡사하게 그린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정말 실물과 똑같이 그렸다고 놀라워하기도 하였다. 그 그림이 사진 찍은 것처럼 똑같은지를 물어 보았을 때는 사진과는 다르지만 사진처럼 실물과 아주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며 흥미로움을 느꼈다. 실물과 똑같이 그린 그림이라는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화가가 표현한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는 제목과의 관계를 찾고자 하면서 작품을 통해서 화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미술작품을 통해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은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그 친구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태도도 보였다. 다음 사례는 S아트센터의 야외조각대전을 감상하면서 제목과 작품을 연결 지어 제목과 작품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의미를 알고자 하는 과정이다.

교사: 저건 뭐지?

재윤: 깡통로봇이예요

수민: 제목이 '잃어버린 꿈' 꿈을 잃어버린대. (웃으면서)

지환: 여긴 구멍이 많아. 꿈이 잃어버려지나봐.

재윤: 이건 바이오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루나봐요.

(S아트센터 야외조각전, 2008/10/ 21)

입체조형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유아들은 제목을 유심히 보았고 제목을 입
으로 되내이기도 하면서 유아들 나름대로 제목과 조각품의 연관성을 찾으려
고 하였다. 추상적인 제목이 입체조형작품에는 더욱 많아 연구자는 유아들
이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평면보
다는 입체라서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쉽게 끌었고 입체작품을 감상하면
서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상력을 종합하여 조형작품에 제목이 타
당하게 어울리는 이유를 찾아내면서 또래끼리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
였었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작품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를 알아가고자 하
는 노력으로 보였다.



[사진 17] 조각을 보면서 유아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 18] 조각의 작품설명과 제목을 보며 감상하는 모습

(4) 감상을 이렇게 해 볼까? : 다양하게 감상하는 방법들

미술관에 찾아온 교사와 유아들은 단체로 한 바퀴 돌아 보는 정도가 가장
많다. 한 기관당 가장 긴 시간이 15분이며 한 작품에 머무르는 시간은 40
초~1분정도라고 한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으로 미술관 관람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김지원, 2007). 이렇듯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으로는 주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작품을 지나치듯이 보
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연구자는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유아
들과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교사가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아들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어 다양한 감상방법을 만들어내고 찾기도 하였다. 다음은 S아트센터에서 야외조각을 감상하는 과정이다.

교사: 이 작품 앞에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서 보면 어떨까?

서서 볼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민서: 앉아서 보니까 그림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수민: 하늘에 높이 떠있는 것 같아요.

나희: 여긴 그림이 잘 안보여요(조명에 빛이 반사되었다)

지환: (뒤로 걸어가면서) 뒤로 뒤로 가서 볼래요..

교사: 그래 그림 어떻게 보이니?

지환: 그림이 쪼그맣게 보이는데요. 더 멋있어요.

교사: 어떻게 멋있는데?

지환: 멀리서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시은: (작품 바로 밑에서 위를 올려보면서) 야 여기서 봐봐 그림이 이상하게 보여

교사: 그래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림 이번에는 사각형을 손으로 만들어서 이 그림 중에서 한 부분만 사각형 안에 넣어서 보면 어떨까?

(S아트센터 수채화 감상, 2008/10/21)

위의 사례에서 유아들은 교사의 새로운 감상 방법의 제안을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이면서 더 확장되어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미술작품 중에서 평면작품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일정한 윗부분으로 떨어져서 눈높이 정도의 벽에 걸어두는데 유아들은 그런 작품을 바닥에 앉아서 보게 되니 보게 되는 시선이 바뀌어 색다른 느낌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이 고정되어있으므로 유아들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작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상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냥 서서 보거나 지나치면서 걸어가면서 감상하던 때와는 다른 면도 볼 수 있었다. 작품의 작은 선이나 그림의 가장자리에 있는 낙관이나 작가의 싸인까지도 보게 되었다. 또한 교사가 그

림 전체를 그냥 보기 보다는 그림의 작은 일부분만을 보도록 제안하자 유아들은 손가락으로 세모, 동그라미 등의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가면서 손가락 사이에 보이는 작품의 부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방법으로 작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많은 느낌이나 다양한 미술의 표현들을 발견해 내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음은 S아트센터의 수채화전을 감상하는 과정이다.

민주: 선생님 저기요.

혜원: 저기는 반짝거려요.

우민: 장미가 또 나왔다. 4개다.

교사: 근데 장미그림이 다 똑같니?

우민: 아뇨. 색이 달라요 이장미가 더 크구요.

(중 략)

교사: 여기에 있는 할머니를 그린 그림은 어때?

수민: 점으로 그린 것 같아요.

나희: 모래로 그린 것 같아요.

시은: 나희야 붓으로 툭툭 찍은 거 같아 요기.

예원: 선생님, 근데요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되게 많아요.

 판 테 서도 그래요.

교사: 여기도 '기다림'이 있네. 그래 기다림이란 제목이 굉장히 많구나.

(S아트센터 수채화 감상, 2008/10/21)

유아들은 작품의 미술적인 요소인 색이나 형태 등을 찾아보면서 감상하기도 하고 작품에 그려있는 것과 같은 물건을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거나 같은 제목이 또 있는지 찾아보는 등을 여러 작품들을 서로 관계 지어 분류해보고 묶어보면서 감상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유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감상 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19]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유아들

유아들은 미술작품에서 사용된 재료 중에서 물감을 제외한 다른 재료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한 것인지 궁금해 하였다. S아트센터에서 수채화를 감상하면서는 반짝이풀 같은 재료가 사용된 그림을 보고 신기해하며, 반짝이는 것들이 다른 작품에도 사용되는지 찾아보려고 하였다. 유아들은 평면작품도 물감, 연필, 크레파스외의 다른 재료로도 그릴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재료에 대한 탐색을 더 깊이있게 하였다. 다음 사례는 S아트센터 야외마당에서 전시하는 야외조각품을 감상하는 과정이다.

용호: 선생님! 이거보세요 돌로 만든 거지요?

교사: 그래 돌로 깎아서 조각품을 만든 거네. 제목이 뭘까?

용호: '운동'일거 같아요. 엄마아빠가 이러는 거 많이 봤었거든요.

교사: 그래?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볼까?

시은: (다른 조각상을 가르키면서) 선생님! 이건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인가봐요.

교사: 따라해 봐도 재밌겠다.

윤정: 제가 해 볼래요.

교사: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 전시되어있는 조각상을 따라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S아트센터 야외조각전 감상, 2008/10/21)

입체조형작품은 평면적인 조형작품과 비교해 볼 때 실제적이고 구조적이며 평면적인 조형작품이 나타내기 힘든 공간감이나 질감 등의 조형요소를 보다 쉽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특성과 3차원적인 입체 개념이

미분화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감상교육 측면에서 평면적인 조형작품과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배경과 더불어 입체조형작품을 야외전시장에서 감상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보는 작품과는 다른 시각적 경험을 유아에게 갖게 함으로써 미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이영진, 1997). 다음은 야외조각을 보면서 유아들이 작품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해보는 장면이다.



[사진 20] 작품을 따라해보는 유아들

유아들이 입체조형작품을 감상하면서 입체조형작품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작품의 재료와 제목보다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들은 작품의 형태를 몸으로 따라하면서 감상을 해보기도 하였다. 몇몇 유아들은 다른 곳에 있는 작품을 먼저 찾아내어 따라해 보면서 교사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고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자신의 몸을 입체작품과 똑같이 만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 지속적인 미술관관람을 통하여 유아들의 사고가 정서적인 측면이나 예술적인 감성만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적인 탐구로도 확장되면서 감상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5)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아내며 - 신기한 미술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관람하면서 유아들은 많은 종류의 재료들과 다양한

표현기법들, 주제에 대해 알게 되고 관련된 경험을 해 보았다.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 후 사후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미술재료와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게 되는 변화와 현상에 대해 주목하였고, 과학실험을 하듯이 결과를 예측도 하고 다양한 재료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입체조형작품을 감상 하면서는 평면작품과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것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움직이거나 소리가나는 작품은 어떻게 소리가 나고 움직여지는지 근원지를 파헤쳐보려는 노력도 하였다.

미술이라는 것이 붓, 색연필, 크레파스로 그리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재료가 이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미술을 하면서도 과학적인 사고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사 자신은 항상 고민스러웠으나 유아들과 미술활동 속에서도 다양한 과학적인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해결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소그룹으로 유아들과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서로 비교해보는 과정이다.

교사: 미술관에 가면 무엇으로 그렸던 게 있었니?

유아들: 먹물, 꽃잎, 물감이요.

교사: 그래, 물감을 제일 많이 쓰는데, 화가들은 주로 유화물감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재윤: 기름유자요. 식용유 먹을식 사용용 기름유요.

형근: 아!! 물고기 종이도 생각나요. 여름에 한 거요.

교사: 형근이가 마아블링을 말하는구나 마아블링 물감을 물에 섞었을 때 어땠어?

형근: 둥둥 떴어요.

교사: 그래 그래서 종지로 찍어내면 어땠니?

시은: 물감이 묻었었어요.

교사: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것과 비슷해, 기름과 왜 물이 서로 잘 안 섞일까?

재윤: 기름은 가벼워서 그래요. 물이 더 무겁거든요.

(중략)

유아들은 수채화물감과 유화물감을 종이에 짜보면서 유화물감은 종이에 기름이 묻어나고 물감을 짜기도 뻘뻘하게 힘들게 찐다. 그러면서 굳어진 거 같다거나 딱딱하다는 말을 한다. 수채화물감을 짜보면서는 물감이 종이에 서로 동그랗게 뭉쳐지면서 물방울처럼 보이고 부드럽게 짜게 된다고 말을 한다, 재윤이는 수채화물감을 찐 것에 입김을 불면서 흐른다고 말한다.

(S아트센터 관람 전 사전활동/2008/10/20)

물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유아들에게는 생소하고 신기한 일이었다. 실험을 통해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비교해보면서 유화와 수채화의 물감은 기름과 물의 성질과 같다는 것을 발견해내었고 기름이 물에 섞이지 않듯이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직접 해 보면서 터득하게 되었다. 지난 1학기말경에 '물'이라는 주제로 활동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마이블링 물감도 유화물감과 비슷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전기와 쇠, 철사 등이 미술재료에 이용된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재형: 우와! 쇠를 붙여서 철사를 꼬았어요.

지환: 쇠를 어떻게 꼬아서 붙였을까?

재윤: 장수풍뎅이를 만든 거 같아 .

혜원: 우와! 움직인다. 제목 장수풍뎅이 맞다

민서: 우와! 어떻게 움직이지?

재윤: 전기줄 보이잖아 전기로 움직이는 거지. 전기줄로 전기라 흘러서 저게 움직이게 되는거라구.

(S아트센터 야외조각전감상, 2008/10/21)

미술관에서 다양한 작품 감상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은 새롭게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미술재료들에 대해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배워나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체작품을 감상하면서 쇠, 나무, 철사, 컴퓨터 키보드,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었다는 것에도 신기해했지만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전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전기를 이용해

서 작품을 움직이게 한다는 발상이 유아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입체작품을 볼 때마다 전기줄이 연결되어있는지 움직이거나 빛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다.

다음은 L미술관에서 설치미술을 감상하고 난 후 사후활동으로 설치미술을 똑같이 만들어보는 사례이다.

교사: 그래 ,그럼 물고기 모빌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까?

소은: 똑같이 해봐요.

교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해보자 그 모빌은 색은 어땠어?

나희: 빨간색이요.

교사: 그래, 이진 색소야. 그런데 물감으로 타는 거보다 훨씬 맑은 느낌이 난대.(색소를 물에 붓는다)

유아들: 우와! 번져요. 번진다. 와!.

교사: 그래 어떻게 가루와 물이 만나고 있니?

수민: 서로 물에 섞여요(교사가 젓는다. 빨간색으로 변하자 환호성!!!)

교사: 거기도 이런 색 비슷했니?

수민: 네 맞아요. 똑같아요.

(L미술관감상 후 사후활동, 2008/10/29)

위의 사례는 사후활동으로 설치미술 작품을 똑같이 만들어보면서 색소가 가루와 물이 서로 섞이는 현상, 즉 가루가 물에 떨어지면서 가루의 색깔로 물이 확 퍼지면서 물의 색이 변하는 상황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밀가루나 다른 가루들도 색소가루처럼 물에 쉽게 녹아버릴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설탕, 밀가루, 수채화물감, 고춧가루를 물에 떨어뜨려보면서 색소가루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실험해보았다. 유아들은 미술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재료나 작품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보여 지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는 유아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미술재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그로 인해

달라지는 재료들의 모습들, 그리고 미술작품에 전기가 사용된 것, 움직이는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것인지 호기심을 갖게 되는 등 유아들은 여러 가지 작품과 재료를 이용하여 과학적 탐구를 하게 되었다. 유아들이 스스로 예측해보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는 등의 과학 활동에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6) 막상 와보니 재밌는 곳: 미술관은 즐겁고 신나는 놀이터

유아들은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느낌 등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상태도 표현할 수 있고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을 통한 관찰과 재유미를 미술활동을 통해 드러내기도 한다(이경수, 2006).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을 눈으로 쳐다만 보고 지나치지 않고 감상하는 작품에 관한 내용으로 유아들끼리 놀이화시켜서 감상을 즐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수께끼로 알아맞히기를 한다거나 보물찾기처럼 계속 무엇인가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활동 후에 미술관에서 본 것이나 느꼈던 것들을 그리거나 적어보거나 관련된 것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미술 작품에 그려진 다양한 모습이나 상황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혼자 또는 유아들과 상호교류하면서 놀이를 만들어 전개해 나가기도 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어린이 벽화를 감상하는 과정이다.

우민: 우와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위로 보면서)

교사: 주로 무슨 그림을 그렸니?

민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요.

나희: 병원놀이를 이런 것을 떼어서 할 수 있겠다.

형근: 선생님 보세요. 제목을 다 위에 해놨어요.

수민: 블록 같다. 블록놀이해도 재미있겠다.

벽화가 가로 7cm 7cm로 된 우드락 위에 종이를 덧대어 그 위에 연필로 그리고 색연필로 칠한 초등학생들의 그림들이 1층과 2층에 걸쳐서 한쪽 벽면에 잘 정렬되어 있었다. 전시되어있는 그림 중간 중간에 어린이들의 다양한 놀잇감이 그림위에 붙여 두었고 벽화에 함께 놀이감이나 일상용품을 붙여 놓 것에 유아들의 관심이 많았다. 유아들은 벽화위에 붙여둔 다양한 놀잇감이 작품과 어울려 전시되어있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재미있다는 반응이었다.

(G미술관 벽화감상, 2008/11/04)

위의 사례는 유아들이 벽화를 감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일 감상한 벽화는 일반적인 벽화처럼 큰 벽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림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넓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작품의 기획이나 구성은 화가가 했지만 작은 벽화의 그림들은 모두 초등학생들의 작품이었다. '5만개의 창 미래의 벽'이라는 프로젝트를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것,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물건, 같이 살고 싶은 동물 등 매일의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작은 그림 속에 마음껏 표현한 것이 전시되어 있었다. 초등학생의 작품이라서 유아들은 감상하는 것이 쉬웠다. 작은 벽화 중간 중간에 어린이들의 놀잇감 같은 물건들을 붙여두어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유아들은 그 물건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물건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유아들끼리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벽화의 작은 그림은 시각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우드락으로 2cm정도의 두께로 그림 뒤에 덧대어져 있었다. 유아들은 규칙적인 배열로 1,2층이 연결된 5만개의 그림들을 보면서 쌓기놀이 영역에서의 블록을 연상하면서 블록놀이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고 바둑판같다는 생각도 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G미술관에서 벽화를 감상하기 전 안내자에게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유아들과 어린이벽화를 전시해 놓은 사진이다.



[사진 21] 벽화감상 하기전 주의점을 말하는 안내자와 듣고 있는 유아들 [사진 22] G미술관의 벽화를 전시한 모습 [사진 23] G미술관의 벽화

다음의 사례는 설치미술을 감상하고 나서 사후활동으로 설치미술작품을 10월말 경에 만들어 복도에 걸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시기에 다른 반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이다.

수찬: 이게 뭐야?

나희: 이거 설치미술이야.

수찬: 가짜 물고기가 들어있어. 어항이냐?

나희: 설, 치, 미, 술, 이라고!! 미술관에 가서 본것!

수찬: 니네가 만든 거야?

나희: 응, 물고기장난감도 집에서 가져오고 물도 빨갭게 해서 만들었어

윤서: 재미있었겠다. 예쁘다. 아기들 보라고 매달아 놓은 거 같아.(만져본다)

수민: (걸어오면서) 야 만나지지마. 물 샌단 말야.

눈으로만 보는거 몰라? 만지면 안돼, 우리 반 작품이야

(사후활동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누며, 2008/11/24)



[사진 24] 설치미술작품을 만들어서 복도에 전시해 둔 모습

L미술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있던 설치미술을 유아들은 그대로 따라

해보기를 원했다. 나무에 물주머니가 매달아있는 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다. 유아들은 물주머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각자 생각해본 후 집에서 물고기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OHP 필름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만들어보기로 하였고 빨강색물감을 물에 타서 색을 내보자고 하였다. 교사는 물감을 이용하면 색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생각에 빨간 식용색소를 이용하여 물의 색깔을 만들었다. 만들고 나서는 물주머니의 무게가 무거워 교실에는 설치 할 곳이 없었고 복도의 반 이름 밑에 매달아놓기로 하였다.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반 유아들은 설치미술작품에 대해 궁금해 했고 맑은반 유아들은 다른 반 유아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었다. 또한 다른 반 유아들은 설치미술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기들의 모빌이나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맑은반 유아들은 설치미술이란 새로운 개념을 다른 반 유아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복도는 늘 작은 소란스러움이 계속되었다. 맑은반 유아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언어적인 표현이 매끄러워지고 유연해짐도 느낄 수 있었고 반복해서 설명해준다 보니 나중에는 요약해서 단번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유아들이 미술관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고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교실로까지 가지고 와서 지속시키며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었다.

(7) 미로 안에서 탈출구 찾기 -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교사

미술관을 관람할 때 교사의 역할수행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의 37.4%가 교사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지원, 2007). 교사가 유아들과 미술관 관람을 할 때는 전시하는 작품주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술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이상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교사가 유아들을 인

술하여 미술관 관람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지식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미술작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교사가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알기에는 무리이다. 교사도 유아들과 같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유아들과 모르는 부분들은 함께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즉 유아의 눈높이에서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는 지원자,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새롭게 알고 배우는 공동의 지식의 구성자가 될 수 있었다. 다음은 L미술관에서 설치미술을 감상하고 난 뒤의 교사저널의 일부분이다.

이 미술관을 선정하기까지 과연 유아들이 설치미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고 흥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까 또한 미술로서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안고 관람을 하였다. 교사인 나도 설치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관람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다.

(중 략)

또한 설치미술은 평면보다는 입체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서 다면적으로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인 교사가 모르거나 갑작스레 떠오르지 않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유아들에게 묻기도 하고 도슨트에게 질문도 하면서 함께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과정이 유아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흥미를 더 불러 일으켰던 요소가 된 것 같다. 교사인 나도 유아들과 함께 설치미술의 의미를 확실히 배웠고 사진의 기술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점, 또한 공공미술이라는 말도 알게 되었다. 유아들에게 교육적인 목표고 관람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관람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관람해야 한다는 나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계기도 되었다. 유아들과 즐기고 느끼면서 함께 배운다는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L미술관 관람 후 연구자저널, 2008/10/28)

설치미술(設置美術, installation art)이란 회화나 조각을 전시할 분석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 색다른 진열방식으로 보여주는 미술을 말한다. 소재가 다양하고 주제도 과격적이며 시각·청각·후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총동원한다. 여러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즉 전통적 미술 양식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실험성을 갖고 있고 문명·사회·정치에 대해 풍자와 비판이 두드러진다(두산백과사전). L미술관에서도 설치미술은 사회를 풍자하여 만든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는 설치미술에 대해서는 감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유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다. 유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미술, 새롭고 신선한 것, 또한 미적 우수성을 가진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관람하게 되었다.

유아들과 설치미술을 관람하는 것은 기존의 평면적인 작품을 관람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작품을 해석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읽어가는 과정도 새로웠다. 설치미술작품을 둘러싸고 서거나 앉거나 만져보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감상하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도 매우 유의하였다. 이러한 진행 속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미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였다. 유아들에게 교사도 설치미술을 모른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알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이 조금씩 궁금해 하는 것들,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것을 교사는 적절하게 교육적인 효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사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되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에게 다양하게 질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해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교사의 질문과 제안에 유아들은 더 큰 반응을 보였고 유아들이 작품 감상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되었다. 또한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가를 섭외하여 유치원으로 초대하였다. 화가의 이야기와 답변,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아들의 궁금증은 해결되었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혀주는 계기도 되었다.

미술관에는 도슨트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그리고 도슨트가 있는 장소일 경우 어느 정도까지 설명과 안내를 해주게 되는지 각 미술관마다 다르다. 미술관을 입장할 때부터 퇴장까지 인솔하며 설명해주는 경우

가 있고 전시하는 공간의 일정부분만을 안내해주는 경우가 있다. 미술관 관람하기 전에 교사는 도슨트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미리 점검해보아야 하고 유아들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 주는지의 여부도 사전 답사할 때 반드시 알아보아야 했다. 미술관 관람 전에 미술관 안내자와 협의를 했고 미술관 관람 당일 관람하기 전 잠시 도슨트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설명하실지 들어보고 교사는 유아들의 수준을 알려주고 어떤 점을 더 신경 써 주실지 전시 작품에 맞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미술관에서 도슨트와 함께 설치미술 전시물을 관람하는 과정이다.

도슨트: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만든거예요.

시은: 저기 빨간색은 뭐예요?

도슨트: 지진나고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아파. 그래서 피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아프고 힘든 상태인 사람들을 미술로 알려주셔서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도슨트: 여러분 놀라면 눈이 커지지? 그런 것과 같아.

여러분처럼 미술관도 오구 그런 어린이들과 사는 모습이 많이 다르지.

(중략)

재윤: 긴장인거 같아요. 제목이. 귀신 나오는 거 같아요.

도슨트: 미술품의 제목이란 건 여러분의 생각이 제목이 될 수도 있어 화가가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만 그것에 얽매면 안 돼.

교사: 그림 작가의 제목과 다른 생각으로 감상하고 제목을 붙여 봐도 되나요?

도슨트: 물론이죠.

재윤: (조명 이용 해 만든 설치미술작품을 보면서)이런 게 미술은 아니잖아요.

도슨트: 응 이런 건 설치미술이라고 해. 찰흙이나 종이에만 하는 게 미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으로 설치해서 만든 작품을 설치미술이라고 해.

재윤: 컴퓨터 업데이트 하는걸 설치한다 같아요.

나희: 별집 같은 게 들어있어요.

도슨트: 뭐 생각나?

유아들: 해.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교사 : 그래 삼각형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마름모도 보이네. 빛도 나고.

도슨트 : 작품제목이 빛의 우주야. 아까 피라미드라고 한 친구있지?

작가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빛의 피라미드라고 하려고 했다가 가운

데 해와 행성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빛의 우주라고 지었다.

교사 : 지금 우리가 서서봤잖아 그럼 지금은 앉아서 봐봐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자를 봐봐 어때?

유아들 : 와! 거미줄 같아요. 우와!

(L미술관 설치미술 감상, 2008/10/28)

L미술관에는 다양한 빛과 화려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 주변에서 흔히 보기 쉬운 타일, 거울, 옷핀, 거울, 재활용박스, 종이 등을 이용하여 만든 설치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치미술은 유아들이나 교사에게 모두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지만 도슨트가 유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유아들의 말에 귀기울여주면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도슨트가 교사의 의도를 알고 유아들에게 적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주어서 유아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는데 있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다. 미술관에 입장부터 도슨트가 안내해주면서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도록 유아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주면서 작품 감상을 더욱 즐겁고 흥미진진하게 이어갔다. 도슨트가 예를 들거나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유아들은 주의 깊게 도슨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을 주고 받게 되었고 궁금한 것들을 유아들은 교사나 도슨트에게 물어보았다. 교사는 유아의 질문에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도슨트에게 또 다시 물어보며 해결하였다. 도슨트가 유아들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전시작품을 설명해주고 교사는 유아의 생각이나 기존의 알고 있는 미술관련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적절한 코멘트를 해주면서 교사, 유아, 도슨트 모두가 즐겁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도슨트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유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읽으려고 하였고 교사도 도슨트와 유아의 사이에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적절한 질문과 답도 하였다. 교사, 유아, 도슨트가 서로 상호 교류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며 감상하였다. 또한

자칫 화려한 빛으로의 유아들에게 잠시 시각적인 자극만을 주면서 호기심으로 그칠 수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교사와 도슨트가 유아에게 흥미를 가지고 작품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관 관람 활동의 초기단계에서는 도슨트의 안내가 원활하지 못해 유아들의 흥미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낮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미술관 관람하기 전에 교사가 안내자와 도슨트가 어느 정도까지 유아들에게 안내해 줄 것인지 또한 유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관심을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누고 난 뒤에 관람 하였고 그래서 유아들이 깊이 있고 재미있는 미술세계를 경험하며 질 높은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아래의 사진은 유아들이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설치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장면이다.



[사진 25]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중기단계에서는 초기보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실행하면서 유아들의 탐색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많이 보였다.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알지 못한 미술 재료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아들은 교사가 이끌고 제시해주는 활동에는 즐겁게 활동을 하였으나 스스로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없어 아

쉬웠다. 교사가 이끌어 준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속에서 찾아보고 알아가는 소극적인 과정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 다음회기는 유아들의 작품으로 만든 미술관을 기획해 본다면 유아들이 자신의 작품에 더욱더 애정을 많이 갖고 유아자신의 작품에도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또한 유아들에게 작품을 보고 서로 토의도 해보면서 생각도 나누고 지식을 함께 구성해가는 모습도 부족했던 것 같다. 유아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관 관람 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짧은 감상, 긴 여운 - 삶 속에 녹아있는 미술

지금까지는 교사의 계획하여 교사가 주도가 되어 활동을 이끌어가고 유아들이 교사가 이끄는 것에 즐거워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흥미를 갖지만 유아들의 태도는 수동적이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 6,7,8회기 동안에는 유아들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관람하고 활동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 스스로 확산적인 사고를 하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알아보려는 노력들도 보였다. 후기에 들어와서 교사는 미술관을 정하고 계획만 해두면 유아들은 어떤 작품을 감상하게 될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어떤 것을 관람하게 될지 미리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존의 미술관에서 보았던 어떤 작품과 비슷할지도 미리 예측과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의 후기에 속하는 6,7,8회기에는 주로 유아들이 주체가 되어 미술관을 만들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기 전의 사전활동과 다녀와서의 사후활동을 결정하였다. 유아들이 미술관을 더 친숙하고 자유롭게 느끼고 작품을 즐기면서 감상하도록 계획하였다.

(1) 미술은 마술이다 - 무한한 재료, 끝없는 상상

미술표현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료의 사용방법에 따라 드러나는 작품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직접 재료를 사용해보면서 알게 되었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단조롭고 한정적인 재료의 제공으로 유아의 표현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도 다양한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응용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아를 안내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 미술교육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송윤이, 2006). 미술관에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사후활동을 진행해보면서 처음 사용해 보는 많은 미술재료들이 있었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한 미술재료가 되었다는 것도 유아들은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아들의 창의성과 표현능력에 크게 좌우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H미술관에 가서 도슨트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다.

재윤: 연필로 그린다음 파스텔로 칠한 거 같아요

승민: 이긴 물병이야.

도슨트: 요건 어떻게 했냐하면 그림그린 다음에 불에 살짝 문지른거야.

지환: 우와! 요리하는 거예요?

교사: 식초나 그런 레몬으로 그린그림을 그을려서 한 거죠?

도슨트: 오렌지쥬스나 레몬을 섞어서 해도 되요. 산성인 것으로는 아무거나

교사: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똑같이 그렸을까요? 애들아 진짜 신기하지?

재윤: 우와 마술 같은 거네요.

도슨트: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린 건 작품이 되고 재주가 되는 거 쟈지요?

양초 같은 것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윤: 선생님, 그런데 좀 위험할거 같아요.

(H미술관 관람, 2008/11/25)

미술작품의 재료로 다양한 과일과 양초를 이용했다는 말을 유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었다. 작품에는 과일의 알록달록한 색이나 양초의 흰색 또는 양초

의 찻농의 미끄러움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을음처럼 그림으로 보이는 갈색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유아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고 관심을 두게 하였다. 보통 일반적인 미술작품들과는 다르게 단순한 병을 그린 그림이지만 그을음의 정도에 따라 갈색의 진하고 옅은 느낌으로 표현된 점을 유아들은 인상 깊고 독특하게 느꼈던 것 같았다. 불을 이용해서 그을리는 것으로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선한 자극이었다. 다른 사례는 동판을 이용하여 미술활동을 하고 난 후 연구자 저널의 일부이다.

동판에 대한 재질을 설명해주고 유아들에게 그림을 그린 뒤 못으로 두드리거나 굽어서 동판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저마다 원하는 그림을 연필로 동판위에 밀바탕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두드리는 도구를 이용하여 동판위의 그림을 따라 굽고 강약을 조절하여 두드리면서 그림을 완성해간다.

혜원: 와! 와! 찍힌다. 아깐 맨질 맨질 했었는데

수민: 그림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같아, 와 마술쇼!

나희: 와! 내가 세계 하면 구멍도 생긴다.

작업하는 내내 통탕통탕 소리가 심하게 들리지만 유아들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간다.

(동판그림, 2008/11/26)

위의 사례는 동판화를 하는 과정이다. 두들기거나 굽거나 찍으면서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한 듯 오랜 시간의 작업이 필요한 활동이지만 몰입하여 장시간동안 작업을 하였다. 질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림이라 위의 수민이의 말처럼 뭔가 툭툭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놀랍기도 하였다. 다음 사진 중에서 왼쪽 사진은 유아들이 동판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유아들이 동판에 못으로 찍고 굽어내면서 나타난 그림이다.



[사진 26] 동판화제작 모습.

위의 사진이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들은 힘과 자극을 가하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튀어 나온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술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아들에게 그리거나 색칠하거나 만드는 것 말고 평면작품에서 볼로 그을려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또는 두드리고 긁어서 질감으로만 나타내는 작업이 유아들에게는 마치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마술을 하는 마술사를 연상키는 듯하게 보였던 것 같다.

유아들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자연이 훌륭한 미술재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미술재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 미술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양이나 틀, 바래지는 색, 움직이게 되는 작품등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신기해 하였다.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미술작품은 유아들이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과정 중에서 마술로 느끼기에 충분한 미술이다. 유아들은 놀랍고도 신기한 미술이 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고 신기함을 안겨줄 수 있던 것 같다.

도슨트: 사진이랑 비슷한데. 이건 판화야. 요즘에는 사진과 비슷한 판화도 있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작품이라고 해, 도자기조각을 도조라고 해.

그래서 저건 도조작품이라고해. 어려운 말로, 도자기에는 백자와 청자가 있어. 흰색과 파랑색. 저기 움직이는 텔레비전을 미디어아트라고 해.

천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을 섬유예술이라고 해, 너무 어렵나?

교사: 옷감이나 천을 사용해서 만든 것을 섬유예술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셔. 너희들 현대미술관에서 텔레비전 탑을 쌓을 것을 본적 있잖아. 그런 것처럼 계단처럼 티비를 만들어서 미디어아트로 해 놓은거야.

재운: 여긴 조각나있다.

도슨트: 미술도 여러 가지 많다고 했지? 요런 그림을 회화라고 하는 거야.

이런 그림은 금속공예라고 해. 공예라는 건 뭘 만들고 그러는 거야.

회화에는 뭘지 모르는 그림과 알 수 있는 그림이 있어.

재운: 추상화 알아요.

도슨트: 여러 가지 미술종류가 있어.

(H미술관관람, 2008/11/25)

H미술관에는 그동안 여러 미술관에서 보았던 작품들이 모두 집합되어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H미술관에서는 '이어지는 아시아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있었다.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회화, 섬유설치, 사진등 여러 작품이 모두 전시되어있어 그동안 다녀보았던 미술관에서 감상한 작가의 작품들도 여러 점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은 기억하진 못해도 '어디서 봤던 건데' '이 그림 나 아는데'등의 말을 하면서 감상하기도 하였다. 미술이 라는 것은 도화지에 그리고 찰흙으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미술은 계속 변화되어가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유아들은 알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사진 27]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2) 미술은 꿈과 희망이다. - 꿈을 심는 화가들, 우리들만의 미술관

미술관에 가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유아들은 주로 수준 높은 작가들

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미술관관람 후 사후활동을 하면서 화가를 따라 해보는 등의 연계활동을 해보기도 하였는데 유아들 자신의 그림들은 교실의 벽면에 게시되는 것이 전부였었다.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전시되었을 때의 기분과 느낌을 어떠할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친구들의 그림들이 미술관에 전시되어있다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면서 우리들만의 미술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랑 유치원에서는 2학기에 작품전시회와 운동회의 행사 중 어느 것을 할지 교사들과 협의고 있는 중이라 연구자는 우리 반의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전시회를 해보자고 건의하였다. 모든 교사들이 미술관 전시회도 가치 있고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행사로 판단하여 미술관을 대여하여 전시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만 3, 4, 5세 유아들의 다양한 그림들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전시되어있는 것은 기존의 교실 벽에 게시되어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다. 다음은 전시회를 관람하러 오신 학부모님과 유아와 교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교사 : 수민이 어머님 수민이 그림이 여기 있네요

수민엄마: 정말 멋지네요. 아이들 전시회라고 해서 기대안했는데.

수민: 엄마 내 그림 여기 있잖아

수민엄마: 어머 산에 가서 그린 그림이네. 나무가 이렇게 생겼었어?

수민: 응 연필로 그린거야. 손을 이렇게 해서(엄지와 검지로 네모를 들어 보이면서) 본 것을 그렸어.

교사: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 그린 거예요

수민엄마: 어머 나회도 잘 그렸네.

수민: 이거는 나무가 휘어져있는 거야. 여기에 햇빛도 비쳤어.

(우리들의 미술관 전시 중 학부모면담, 2008/11/15)

위의 사례는 유치원 아이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회에 부모님들을 초대하여 관람하면서 대화한 내용이다. 수민이는 엄마에게 작품을 보여주며 자신이 어떻게 그리 건지 자세히 설명하려하였다. 연필로 나무의 질감이나 나

못있 의 잎맥등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면서 표현했던 야외스케치 작품을 수민이가 엄마에게 소개하고 있다. 수민이는 엄마에게 설명하거나 관람하는 내내 정숙하게 행동하고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엄마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도슨트가 설명해주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미술관 관람을 여러 군데 하면서 여러 명의 도슨트에게 설명과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도슨트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것 외에도 미술관에서 지킬 예절이나 감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므로 유아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다. 다음은 유아들의 작품으로 만든 전시회에 오신 학부모님과의 면담내용이다.

시은엄마 : 대단하네요. 아이들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되어있어서요.

교사: 네. 각각 아이들마다 개성도 있는 작품도 많이 있지요?

시은엄마: 이런 거 애들이 다 한 거 맞아요?

교사 : 그럼요.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건데 교사의 손을 빌려서는 안되지요. 저희 교사들은 유아들과 재료를 탐색하고 미술관에도 다녀오고 나서 본 것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는 미술활동의 순서를 설명해주시기도 하면서 유아들에게 동기부여와 의욕을 불러일으켰죠.

시은엄마 : 근데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애들 작품이 아닌 것 같은.

교사 : 쪽 감상하시면서 시은이에게 작품에 대해 어떻게 한 건지 물어보세요. 시은이가 했으니까 잘 설명해 줄거 예요.

시은엄마: (웃는다)정말 다양하고 작품들이 많아요. 이런 건지 모르고 왔는데

교사 : 그러셨어요? 시은이는 7살이라 작품이 아마 9~10작품정도 있을 거예요. 평면작품도 있고 입체작품도 있구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5,6세 동생들 것도 함께 감상하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시은엄마 : 선생님들이 붙이시느라 수고 많으셨겠어요 가슴 벅차네요.

(학부모면담, 2008/11/15)

유아들의 작품으로 전시된 미술관에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관람하도록 하였다. 유치원에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다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간의 미와 공간과 작품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경험하고 그동안 미술관 관

람을 한 것을 토대로 하여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과 친구들, 동생들 반의 작품을 감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술관으로 전시장소를 정했다. 유치원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미술관을 대여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심을 조금 벗어난 곳의 미술관을 찾아보았다. 전시장, 미술관 건물, 야외 잔디 등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다. 만 3, 4, 5세 연령에 맞는 작품을 학기 초부터 해 온 작품을 전시하였고 학부모들을 초대하였다. 학부모들도 유치원에서 하는 작품 전시회를 다른 기관에서 경험해본 분들이 많아서 별 기대없이 유아들의 손에 이끌려 전시회에 왔다. 그러나 유아들의 작품전이나 여러 가지 구성들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버금갈 정도로 작품의 기법이나 재료나 구성 등이 무척 다양하고 아름답다며 놀라워 하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작품에 꽃과 쪽지를 꽂아두어 마음을 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유아들은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이 받은 꽃 한 송이를 친구의 작품에 꽂아두거나 쪽지를 붙여두어 잘 그렸다고 칭찬을 적는 모습도 보았다.

'가을을 담아낸 꼬마화가들의 전시회'라는 타이틀로 전시하기까지의 과정이 교사들에게는 무척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유아들에게는 기존의 미술관에서 느끼거나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주고 유아자신의 작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되어있는 것을 보고 뿌듯해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은 부모와 같이 관람하러 와서 부모에게 각 작품의 제작과정과 재료 등을 소개해주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는 유아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 미술관 관람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맑은반 유아들이었다. 3일간의 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날 맑은반 유아들은 다시 미술관을 찾아갔다. 교사와 유아들과 유치원 친구, 동생들의 작품을 다시 감상하고 난 후 함께 그림을 떼어내고 정리도 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전시회 끝난 다음날 유아들과 다시 미술관을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다.

교사: 너희들 어제 그저께 왔었지? 누구랑 왔었니?
 나희: 엄마랑 언니랑요.
 민서: 난 아빠도 왔었는데.
 교사: 우리 여기 있는 작품들 다시 감상해보자. 우리가 미술관에 많이
 가봤잖아 여기는 어때?
 소은: 좋아요. 우리 것도 있구요.
 지환: 내 그림은 10개였어요.
 민서: 나두 10개인데.
 교사: 우리 7살 어린이들 그림은 모두 10개씩 같아.
 여기 동생들의 그림들은 어떤지 보자.
 나희: 이건 손으로 도장찍은거다.
 수민: 선생님! 여기가 훨씬 재미있어요. (자신의 그림을 가리키며)
 우리엄마가 꽃을 붙였어요. 잘 그렸다구요.
 우민: 나두 장미꽃 우리엄마가 붙여줬는데.
 (유아들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에 가서, 2008/11/18)

유아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에서는 평소에 미술관에서 관람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우선 자신들의 작품이 얼마나 있는지 개수를 세어보며 만족스러워했고 서로 몇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였다. 또, 다른 반 친구들이나 동생들의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무엇을 보고 그렸는지, 그런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렸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감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그림들을 미술관에 전시 해놓는다는 것만으로도 뜻 깊고 벅찼던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유아들은 미술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현들을 하면서 만족해했고 그런 과정도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표현하려는 시도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감상을 하고 난 후 벽에 있는 그림을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떼어 내어 상자에 담고 입체작품은 깨지거나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신문지로 싸서 상자에 넣는 작업까지 함께 했다. 다음의 사진은 유아들과 함께 미술관을 찾아서 감상하는 장면이다.



[사진 28]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사진 29] 유아들의 작품으로 전시한 미술관

(3) 미술은 맛있는 요리다

- 생각한 줌, 마음 한 줌으로 미술세계의 맛을 더하다.

유아들과 디자인이라는 미술세계로 들어가 보았다. '일상 속에서 친숙한 디자인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에는 유아들에게도 친숙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도슨트가 차근차근 유아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해주고 흥미를 잘 이끌면서 이야기해주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많은 물건들이 가지는 디자인의 의미를 보여주는 전시라 색다른 맛을 느끼게 했다. 도슨트는 포스트잇, 주사위, 여러 색깔의 초콜릿, 큐브퍼즐, 성냥, 면봉등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계기등의 일상 속 소품들이 가진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디자인전시를 관람하고 나서 유아들과 디자인의 의미를 주변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레고블럭은 여러 가지 색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것을 찾아내었고, 옷도 줄무늬, 꽃무늬 그림들도 예쁘게 만들려고 해서 디자인 되었다고 유아들은 말하며 찾아보았다. 다음 사례는 디자인전시를 보고나서 사후활동을 계획해 가는 과정이다.

용호 - 선생님! 그럼 이것도 디자인인가요?(동물캐릭터 털모자를 가르키며)

수민 - 당연하지 귀여우라고 만든 거야

교사 - 그럼 이 모자는 어떻게 디자인 한걸까?

민서 - 예쁘라고 재미있게 쓰라 구요.

교사 - 그래 예쁘고 귀여운 것으로 디자인했겠지 근데 선생님은 다른 부분도 생각하거 같아. 이것을 쓰면 어디가 따뜻해지니?

수민 - 귀랑 얼굴이랑 목이요

나희 - 그럼 모자가 목도리랑 입이랑 머리를 따뜻하게 해요

민서 -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쳐서 쓰라고 한건 가봐요

교사 - 그래 한꺼번에 여러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만든 걸 수도 있을거야

유아들은 동물모양이 여러 종류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 이용하여 동극처럼 만들어 보자고 한다. 교사는 동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지 유아들과 생각해본다.

모자의 동물로만 이루어진 동화는 없으므로 동극내용을 제작하기로 했고 대화내용까지 모두 만들기에는 힘들거 같다고 생각하여 이야기 전개의 줄거리만 만들고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야기내용에 맞게 유아들은 동물모자를 쓰고 말없이 무언극으로 해보기로 결정하였다.

(Y디자인미술관 관람 후 사후활동의 무언극준비, 2008/12/10)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색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할 수 있었다. 미적인 부분과 편리하게 하기 위함, 우연히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 유아들이 겨울이라 추워서 목도리와 모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동물얼굴로 된 털모자인데 유아들은 그 털모자를 보면서 유아들이 함께 디자인의 의미를 찾아보았고 미적인 부분과 보온성을 목적으로 마스크, 목도리, 모자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까지 생각해 만든 것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그러면서 유아들은 다양한 동물캐릭터 모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동극을 떠올리게 되었고 무언극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미술로 사후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유아들이 미술관에 가서 감상한 후 전시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와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고 그로 인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무척 큰 의미였던 것 같다.

요리를 하기위해선 신선한 재료가 준비되고 갖가지 양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과 손맛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맛있는 요리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유아들과 디자인예술이라는 미술의 한 부분을 경험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찾아서 무언극이라는 활동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요리를 하기위한 재료나 도구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양념을 적절히 제대로 하지 못해 본래의 참맛을 몰랐던 것 같다.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한줌씩 담았더니 맛깔스럽고 깊은 맛이 나

는 맛있는 요리가 탄생된 것처럼 유아들의 생각 한줌과 마음 한 줌, 적극적인 태도 등이 양념이 되어 훌륭하고 맛있는 미술세계를 유아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의 그림은 디자인 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는 유아들과 무언극으로 사후활동을 진행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다.



[사진 30] 디자인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는 유아들



[사진 31] 무언극을 하고 있는 유아들

(4) 미술은 생활이다 - 온 세상이 미술관이네요.

유아들이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상생활 주변의 자연과 조형물을 단순히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며 어떠한 의미가 작품 속에 담겨있고 작품에서 의도한 바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다. 다음 사례는 현장학습을 가면서 거리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윤정: 선생님 저기보세요!! 저기에 벽화 있어요

교사: 그래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울타리를 친 곳에 그림을 그려놓았네

윤정: 그런 것도 벽화지요?

교사: 그럼 벽화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그림이 없다면 느낌이 어떨까?

윤정: 예쁘지 않을 거 같아요,

시은: 나무와 잘 어울려요.

교사: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울타리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아무것도 없이
회색울타리만 되어있다면 아마 삭막한 느낌이 들겠지
(미술관 가는 길 버스안에서, 2008/11/25)

유아들은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은 미술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다양한 미술작품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작품을 보는 눈'과 '작품을 찾아내는 눈'이 커진 것 같다. 늘 지나가던 아파트 공사장의 울타리에 그려진 그림이 벽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벽화로 인해 주변의 나무와 거리와 잘 어울린다는 것, 즉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주변의 공원에 입체작품이 전시되어있고 유명한 명화가 간판으로 걸려있기도 하며 아파트 벽에 예쁜 그림도 그려있고 핸드폰 액정에도 명화가 숨어 있고 여러 가지의 디자인 물건들도 늘 주변에 있었다. 항상 다양한 미술작품이 유아자신의 주변에 있어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찾아보게 하지 않았음에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하는 눈을 뜨게 되었고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는 미적 지각을 발달하도록 돕는데 효과적이었다. 더 나아가 유아들은 미술작품의 감상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 즐거움과 통쾌함을 느끼는 내적인 감정의 정화도 이루며 자기 확신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5) 더 크고, 넓고, 깊게!! - 늘 준비된 교사되기

미술관에서 주로 예술품을 감상해 오다가 유아들의 작품으로 전시된 미술관을 만들어보는 것은 유아들에게도 의미 있었고 교사들에게도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다. 유아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미술관에서 유아들이 도슨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품의 제목과 설명을 간단히 간

략하게 적어서 작품을 전시한 옆에 붙여두었다. 그랬더니 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했던 미술활동과정을 생각하면서 설명이 적힌 내용과 적절하게 섞어 부모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전활동을 교사가 계획하지 않고 유아들이 직접 어떤 작품을 보게 될지 인터넷으로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관련된 자료나 책을 찾아보면서 미술관 관람을 더 기다리게 되었고 궁금해 하였다. 그러면서 미술관에서 안내해주는 도슨트에게 사전활동을 유아들끼리 해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도 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도 경험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사전활동을 진행하고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도 교사는 호기심과 흥미가 지속되도록 끊임없이 질문도 하고 함께 알아보는 과정도 유아들과 함께 경험했다.

맑은반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 활동 뿐 아니라 과학 활동이나 음률활동, 게임 등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스로 행동하고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탐구해보려는 노력과 시도를 자주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변의 현상이나 물건들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미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비유적 표현을 하는 것을 유아들에게서 자주 느낄 수 있었다.

유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크게 눈을 뜨고, 더 넓게 바라보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사는 인적, 물리적 환경을 구비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늘 열려있는 시각과 마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 교육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직관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항상 구비해 두어야 할 것 같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랑유치원 만 5세 맑은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관 관람 활동에 대해 연구자인 교사가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연구이다. 맑은반의 효과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을 위해 2008년 9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주 동안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거듭하면서 미술관 관람 활동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갔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교사와 유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1)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만 5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번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추상화 관람 활동으로 미술관 관람과 관련된 사전활동, 본 활동, 사후활동을 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사전활동은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작품그림과 책을 가지고 이야기나누기 하기,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호일데칼코마니와 작은 책 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 본 활동으로는 K미술관에 가서 추상화를 감상하였고, 사후활동으로 몬드리안의 '구성'작품을 바꾸어보는 미술활동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민화감상하기로서 사전활동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과 책으로 이야기나누기를 진행하였고, 본 활

동은 G대학교 박물관에 가서 민화를 감상하였다. 사후활동으로는 수묵채색화 그리기를 하였다.

미술관 관람 활동은 초기에 2번 실행하여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에 6회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3회는 중기로, 이후의 3회는 후기로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에서 교사가 계획하여 감상하려는 미술전시나 작품 이외에 유아들이 다른 작품과 전시, 주변 환경에 호기심과 흥미를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가 계획한 주제의 전시만을 보게 하고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무시해야 되는지,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다 받아준다면 전시주제를 보려고 미술관에 가는 것인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술관을 방문할 때 정해진 주제만을 보도록 제한하지 않고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이 있다면 다른 미술작품들도 충분히 보고 감상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또한 관람을 한 후 사후활동을 진행할 때도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화면구성을 조화롭게 하며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과 다양하게 사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이경수(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탐색을 통해 대상과 재료들의 특징을 알고 이해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생각을 표현해보며 시각을 통해 대상을 분석하고 종합해보는 감상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때 유아의 창의성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에 담긴 뜻을 생각해보며 다양하게 사고하고 탐색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찾기 활동은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하므로 감상할 때는 평면적이고 단순한 감상자료 보다 활동적인 자료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미희(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여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이 미술관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느끼고 관련된 활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미적 감각이나 표현이 유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술은 단순히 행하고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며 기교의 훈련에서 벗어나 예술적 대상을 직접 경험하며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박지효, 2007)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었으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열려있는 공간 미술관에서의 감상을 통하여 더 깊이 있는 경험과 탐색을 할 수 있었다.

초기 2회의 미술관 관람 활동에서 드러난 두 번째 문제점은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도슨트와 관련이 있다. 작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는 도슨트가 있을 때는 유아들의 작품 감상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고 미술관에 도슨트가 없으면 교사가 유아들과 감상해야 했다. 도슨트의 존재 여부 자체가 미술관 관람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술관에 도슨트가 있어 작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관람하는 유아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유아들의 수준에 맞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며 도슨트가 유아들과 작품을 감상하거나 안내해줄 때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했다.

따라서 미술관 장소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도슨트의 설명과 안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미술관 측에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기로 하였다. 도슨트가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나 사전답사 때 도록이나 기타 자료를 가지고 유아들이 어떻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지 고려해보고, 유아들이 전시실에서 관람하는 동선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작품의 수준에 따른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교사는 미리 계획하였다.

도슨트가 있는 경우에는 미술관을 사전답사할 때 도슨트에게 유아들의 미술작품 이해수준을 알려주어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인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유아들이 작품 감상을 할 때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었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작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도슨트나 교사에게 질문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 미술에 관련된 지식도 풍부해 질 수 있었다.

도슨트가 유아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유아들에게 시각적 해독력을 개발하고 미적 체험 활동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유아들의 흥미를 잃게 하거나 미술관을 재미없고 지루한 곳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술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도 잃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민경(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슨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상별 분류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대상에 따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해야 교육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류재만(200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며 유아들의 미적 체험과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어린이 전문 도슨트가 필요하다.

도슨트가 미술관에 배치되어있어 유아들에게 안내해 줄 경우에 도슨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실행해 본 결과 도슨트가 없다고 유아들이 무조건 미술적 지식을 얻지 못하거나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을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감상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함께 지식도 구성해 나가는 협력적이고 동반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도슨트는 작품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므로 유아들에게 일방적인 설명을 주로 하게 되고 미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감상하도록 한다. 하지만 교사와 유아가 함께 감상할 때는 미술작품을 통해서 미술적인 지식을 함께 구성해 나가면서 미술외의 다른 부분을 확장시켜서 생각하고 통합

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연결지어 본다거나 교사는 유아들의 이전 경험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경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유아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슨트의 안내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술관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가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 미술관 관람을 할 때는 교사의 끊임없는 통찰과 열정이 중요하며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통합교과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므로(박승순, 2006) 도슨트의 역할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역할 수행이 더 중요하다. 즉,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미술관 관람 활동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문제점으로 유아들은 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유아 자신의 그림과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의 그림이 예술품과는 현저하게 다른 수준임을 느꼈다. 유아들은 작품을 눈으로 볼 때와 자신이 직접 그려 볼 때의 차이를 크게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게 되고 성취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교사는 어떻게 유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미술관 관람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활동, 미술관 관람, 사후활동의 체계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감상활동을 사진이나 그림만을 가지고 교실에서 하는 것과 감상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다(김문자, 2004; 김보영, 2006; 오연주, 2005; 유혜정, 2004; 이인숙, 2001; 이종진, 2000). 그리하여 권준범(2000)이 제안한 바와 같이 사전활동, 본 활

동, 사후활동을 통해 미술관 관람 활동을 체계화 하며 감상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감상과 미적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사후활동으로 미술활동을 할 때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공해 주었다.

유아들이 활동한 작품들은 교실벽면에 게시해두고 자주 작품을 바꾸어 유아들끼리 작품 감상을 하고 이에 대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도 추상화, 조각, 수채화, 설치미술, 팝아트, 민화 등의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유아들은 점차 다른 친구들의 그림에 대해서 놀리지 않고 각자의 개성 있는 그림임을 인정해주었으며 자신이 만들고 그린 작품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유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재료나 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다음 번에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품 감상을 하는 동안 작품과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결과는 김효진(2006)과 한세라(2003)의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미술관 관람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결과 유아들이 미술관 관람에 대해 동기유발이 되고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미적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미술활동의 즐거움과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교사의 변화 양상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 초기2회의 미술관 관람 이후에 6회의 관람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중 3회는 중기로, 나머지 3회는 후기로 구분하여 교사와 유아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교사와 유아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기에는 초기보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실행하면서 유아들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표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진지하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고,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표현활동을 할 때는 끝까지 완성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술관 관람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장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은 유아들이 재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료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술 재료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한 듯한 놀라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송윤이(2006)에 의하면 다양한 재료의 활용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키워주고 창의적 사고 및 표현을 하게 한다. 유아들의 새로운 발견을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유아들이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즉, 미술재료나 도구에 적절한 변화를 줌으로써 표현방법에 대한 탐색욕구를 증가시키고 확산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의 제목과 그림을 서로 연관 지어 보고 어떠한 의미와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였다. 삭막하고 딱딱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던 미술관을 자주 관람하게 되면서 유아들은 미술관이 즐겁고

신나는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미술관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장순미, 2007) 유아기 때부터 미술관이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 공간이라는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하여 예술품 감상 인식 능력을 강화시키고 미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박승순, 2006).

중기단계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실행하면서 유아들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끌고 제시해주는 활동에는 즐거워하며 만족스러워 하였으나 유아 스스로 도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교사가 이끌어 준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속에서 찾아보고 알아가는 소극적인 과정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들의 작품으로 만든 미술관을 기획해 보게 되었다. 또한 중기에는 유아들이 작품을 보고 또래끼리 토의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함께 구성해가는 모습이 아직 부족했다. 유아들이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관 관람 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감상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었다(김진희, 2000; 유혜정, 2004; 예진희, 2000; 이인숙, 2001; 이종진, 2000). 본 연구결과 미술관을 활용하여 감상교육을 하는 방법이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감상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하면서 유아가 감상하고 표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다양하게 사고하도록 촉진해주었다. 어떤 미술관의 전시를 볼 것인지 사전에 계획할 때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유아들의 작품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미술관을 선정하였고, 전시주제와 관련된 사전, 사후활동을 잘 조직된 계획과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제공해주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 활동에 흥

미를 가지게 되었다. 유아들은 미술관에서 느꼈던 미적인 안목과 예술적인 요소 등을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대상에서 찾아보고 미적인 가치를 느끼고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교사는 미술관 관람 활동의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을 할 때도 다양한 재료와 미술기법이나 방법으로 유아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제공하고 안내해주기도 하였고, 미술활동이나 감상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유아들과 함께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술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며,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는 지원자, 그리고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배우는 공동의 학습자 및 지식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미술관 관람 활동의 후기단계에는 삶 속에 미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녹아있는 것을 느끼고 찾아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관람하고 활동을 진행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유아 자신들의 그림으로 꾸며진 미술관을 만들고 감상하고 부모에게 도슨트의 역할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나서는 교사와 유아들이 협력하여 작품을 철거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어떤 작품을 감상하게 될 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기존의 미술관에서 보았던 어떤 작품과 비슷할지 미리 예측과 생각을 해 보기도 하면서 미술관에서 자유롭게 즐기면서 감상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유아들의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가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통합으로 이어지면서 사후활동으로 무언극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유아들은 미술관 관람 활동을 통해서 감각적이고 직접적 경험을 하면서 주변의 예술적 요소와 미적요소를 찾아내고 다양한 재료나 도구들을 사용하여 시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하는 탐색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자연과 미술품,

자신 또는 또래의 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감상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사고와 태도가 증진되어 가는 것을 유아들의 행동이나 말, 미술표현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수(2006), 이수연(2002), 임경애(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유아들은 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작품을 표현할 때도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유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상상력을 갖고 표현하였으며 도슨트, 교사, 친구와 함께 감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언어표현이 많이 향상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미술관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과 자연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미적인 가치를 두어 느껴보고 감상하기도 하였다. 미적인 체험이나 감상활동이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연계되어 유아의 미적 지각을 발달하도록 돕는다는 이미희(200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들은 교사가 이끌고 가는 미술관에 따라가서 눈으로 한 번 보고 나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직접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감상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술관 관람 활동 후기에는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사후활동을 정해보거나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황정애(2000)는 미적 감수성 뿐만 아니라 언어적 체험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다각적인 영역을 습득할 수 있는 감상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작품의 내용, 작가, 재료 등의 표면적인 감상에서 더 나아가 토의, 대담 형식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작가의 내면세계와 그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공간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작품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

인 표현과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미술관 관람 활동의 과정에서 미술관 관람 후의 사후활동을 할 때도 유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고 선, 색, 형태, 주제표현, 화면구성이 유아들의 작품에서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는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배정미(2006)는 미술관을 통한 교육활동은 유아들의 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상상력, 창의력 사고를 하게 하며 미술표현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장순미(2007)는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능력 및 감상능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술관 관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유아들의 행동과 소리에 더욱 주목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유아들이 흥미로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알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늘 관심 있게 살펴보고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도와주고 깊이 있게 사고하며 행동하고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비해주는 역할을 했다. 교사가 유아의 호기심과 흥미, 관심과 요구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적절히 반응하면서 토대를 마련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를 향한 교사의 깊이 있는 관찰과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열정과 의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 제언

본 연구자는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현장학습으로 미술관 관람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여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맑은반 학급 전체 유아가 모든 함께 미술관 관람 활동을 진행하고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랑유치원 만 5세 맑은반을 대상으로 학급의 담임인 연구자가 미술관 관람 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 연구이다. 이후에는 만 3세 또는 만 4세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관람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점진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술관의 교육전문가(에듀케이터)나 안내 해설자(도슨트)와 교사의 관계를 조망해보는 연구나 미술관 프로그램과 유치원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관 관람중심의 감상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미술관 관람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운정(2003). 유아를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곡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민경(2007). 도슨트(docent)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성화 방안 연구-초 중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준범(2000).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한 미술 감상수업 지도방안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0, 1-38.
- 교육부(1998).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 2007개정 유아교육과정 해설(III)-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53호.
- 김문자(2004). 유아미술 감상지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영(2006). 유치원교사의 유아미술 감상교육 현황 및 인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영(2008). 미적체험을 강조한 미술 감상 교육이 유아의 미적반응과 그리기표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경(200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 연(2002).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미술관 교육활동 개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자(2007). 협동학습에 기초한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미술표상능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신(2005).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희(2004). 통합적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원(2007). 유아교육기관의 미술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희(2000). 유치원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진(2006). 미술관교육과 학교미술교육의 개선 및 연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진(2006).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국 공립 미술관과 사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2002). 국내외 어린이대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2008). 미술 감상학습에서의 미술관 활용의 연구 - 중학교 미술 감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라현숙(2006). 미술관 체험활동을 통한 미술 감상 프로그램의 실행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재만(1994). 어린이 미술 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2, 36-45.
- _____ (2005). 어린이를 위한 전문 도슨트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18, 49-66.
- 문세라(2004). 통합적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미술표현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은식 · 홍미숙(2005) 통합적 미술감상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233-244.
- 박민형(2007). 명화감상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림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승순(2006). 유치원과 미술관의 연계교육활동 연구 - 모란미술관 파푸아 뉴기니 기획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미(2009). 유아지리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아, 김영유(2006). 유아를 위한 미술감상. 서울: 창지사.
- 박은혜(2002).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유아교사의 지식. 서울: 창지사.
- 박지효(2007). 유아 미술교육에 있어서 예술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윤(2007). 유아의 미술표현 및 감상교육. 서울: 동문사.
- 박휘락(2003).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서울: 시공사.
- 배정미(2006). 유아의 미술관 관람활동이 미술 활동과정, 표현능력 및 감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명애(2003)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은지(2008). 탐구중심 유아사회교육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도연(200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형감상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윤이(2006). 유아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 다양한 재료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금희·라현숙(2006). 미술관 체험 활동을 통한 미술 감상 프로그램의 실행 연구. 미술교육논총, 20(2), 251-283
- 안진아(2003).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미술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미선(2008). 만5세 과량반의 동극활동 개선을 위한 실험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예진희(2000). 우리나라 미술관 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어린이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연주(2005). (유아를 위한)명화감상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오주연(1999). 유아교육기관의 박물관 활용 프로그램 모형 개발 - 국악박물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옥(2008). 유아교사의 미술수업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정(2004). 유치원에서의 미술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내경(2000). 미술작품 감상활동이 유아의 미술활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숙(2005).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공간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현진(2006). 미술관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미술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수(2006). 탐색 · 표현 · 감상의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진(2005).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1995). 미술 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규선, 김동영, 류재만, 전성수, 최윤재, 권준범(2000). 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자(1998). 그림감상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희(2003). 생활 속에서의 미술 찾기 활동이 유아의 미적 반응과 표현능

- 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부연(2000). 21세기 미술교육의 방향.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
- 이수연(2002). 탐색·감상·표현의 통합적 미술 교수 전략이 유아의 미적 반응과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이봉선·김경란(2002). 유아 미술 교육. 서울: 창지사.
- 이용숙(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원영(1997). '미국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한 토의. 교육철학, 18, 91-93.
- 이위환·최성열(2005).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미술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14(1) 273-283.
- 이인숙(2001). 유아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조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2007). 유치원 교사의 웹 기반 유아미술 감상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6(2), 21-41.
- 이종진(2000). 유아 미술관교육에 대한 미술학예사와 유아교사의 인식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주현(2006). 아동을 위한 미술관·박물관 project에 관한 연구 :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애(2000). 미술요소에 기초한 그림비평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방(1983).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순미(2007). 미술관방문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능력 및 그림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숙, 윤경아(2005). 그림책과 명화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이 유아의 미술

- 감상 능력과 미술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97- 110.
- 장현진(2008). 만3세 유아 동극활동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진(2005). 명화감상과 연계된 확장활동이 유아의 미술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희(2004). 통합적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가현(2005). 추상화를 통한 명화감상 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1999). 미적 요소에 기초한 활동중심 프로그램이 유아의 미술표현능력 및 미술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미정(2003). 생활주제에 따른 명화 감상활동이 유아의 미술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정(2003). 미적요소에 기초한 입체조형작품 감상활동이 유아의 입체 및 평면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옥녀(2003). 명화를 통한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미술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영순(1982). 미술감상 지도의 개선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인숙(2008). 다중지능이론을 통한 미술관 교육연구-Howard Gardner의 이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선(2001). 인물화 중심의 명화감상 활동이 유아의 그림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정(2003). 유아를 위한 박물관의 전통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제안과 연구.

-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경(2006). 박물관교육을 통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애(2002). 미술관의 어린이를 위한 미술 감상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현(2008).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Blended-Learning 활성화방안 연구-구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미숙(2001). 통합적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창희(1996) 초등학교 미술과 회화 감상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rk, E. L., & Winsler, A.(1995). 어린이들의 학습에 비계설정 : 비고츠키와 유아교육(홍용희 역). 서울: 창지사.
- Bogdon, C. R., & Biklen, K. S.(1998). 교육 연구의 새 접근: 질적연구(신옥순역). 서울; 교육과학사.
- Cole, E., & Schaefer, C(1990). Can young children be art critics?
Young Children, 45(2), 33-38.
- Eisner, E, W. (1972). *Educating artistic vision*. New York: Macmillan
- Eisner, E, W. (1984). 학문기초 미술 교육 운동(김인용, 김대현 역). 서울; 학지사.
- Eisner, E, W.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역(1999).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 Mills, J. E. (2005).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강성우 외 역). 서울: 우리교육.

ABSTRACT

An action research on the visit to art gallery of five-year-old children's Malgeun class

Sohn, Myong-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research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a visit to art gallery with a Malgeun class teacher, myself, in Sarang kindergarten and to analyze the teachers' role and children's change procedure in the process of improvement and ultimately improve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he research issues according to the purpose have been set up.

First, what a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a visit to art gallery for Malgeun class?

Second, what are the changes of the teacher and children in the process of improvement for a effective visit to art gallery?

This study has been aimed at Malgeun class for five-year-olds of Sarang kindergarten in Y city, Gyeonggi Province. The participants are 22 children and the homeroom teacher-the researcher. The period of time is from 29th of September to 12th of December in

2008 and they have visited the art gallery six times to improve the problematic situation after they visited the art gallery twice for searching the problems. The procedure is as follows: the problem recognition and the plan for change, the process of practice and change and the observation of results, the reflection on the procedure and the results, the practice by the revised plan and observation and the repetitive reflection. The whole procedure of a visit to art gallery in Malgeun class has been observed,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the collected data has been divided into a field report, photos, interview materials and teacher journals and they have been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teacher has difficulty in deciding how to appreciate art works when children show curiosity and an interest in other ones besides intended art exhibition or works. Also, a teacher should decide if she places responsibility on a docent or she leads children guiding them and a preliminary inspection is necessary when they are guided by a docent. In addition, there are some occasions when they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orks and their own paintings after viewing art works; that is, they sometimes have been discouraged or lost their interest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seeing and drawing by themselves and it has made their achievements and self-esteem to be lower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eacher has let children freely view other works besides intended ones when they have show an interest in other ones. In addition, she has grasped whether a docent' explain works and guide visitors and decided how to plan her duty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docent.

Also, the teacher has let children view various works so that they could raise their confidence and self-esteem for their own paintings by systematically planning pre-activity, main activity, post-activity and letting them use various materials to view varied art works.

Second, the improvement plans have been examined and they have been proceeded in the middle and th late period. In the middle period, children have shown more morale to explore and express compared with the early period. The children have experienced fresh and new discovery and astonishment by using unfamiliar art materials in the process of viewing art works and gradual learning. Children have related a title to a painting and researched its meaning and relation viewing the art works, so they have felt like an art gallery is a pleasant and exciting place. However, children have an unsatisfied feeling because they have not challenged and tried something on their own though children have liked the guided activities by the teacher. It was a passive experience that they searched and learned something based on the teacher's guiding. Thus, the art gallery with children's creations has been planned. Also, they are insufficient in discussing, sharing and constructing knowledge through looking into the work. Children has come to think that it would be good to show an interest and find the meaning based on autonomous will and creative thought.

In the late stage, children have become a positive subject for viewing art works and proceeding the activities. They have made the art gallery, planned and progressed the pre and the post activities of visiting an art gallery. Children have completed the post-activity with the silent play while creative and divergent thinking relating the fine

art with other areas. The teacher have played a role of a supporter and cooperative knowledge former who have learned new ones. Moreover, the teacher have provided them the various circumstances where they could plan,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deeply think, behave and view wide. Lastly, children could look for aesthetic insight and artistic factors in all places and objects in their daily lives and have confidence to see themselves more positively.

<부록 1> 1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호일데칼코마니
	활동내용	종이대신 호일을 이용하여 데칼코마니를 하고 바로 종이로 판화처럼 찍어낸다.
	활동명	명화로 작은책 만들기
	활동내용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언어영역에서 다양한 명화의 작은 그림을 붙이고 제목을 적으면서 책으로 만든다.
	활동명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활동내용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추상화가의 그림이 있는 책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 작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본활동	K미술관 - 추상화	
사후 활동	활동명	몬드리안의 '구성'바꾸어보기
	활동내용	몬드리안의 '구성'의 작품에 있는 색과 선을 노랑, 파랑, 빨강, 흰색과 검정1cm정도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성 있게 꾸며본다.

<부록 2> 2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김홍도와 신윤복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활동내용	종이대신 호일을 이용하여 데칼코마니를 하고 바로 종이로 판화처럼 찍어낸다. 데칼코마니 -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한쪽 면에만 여러 가지 물감을 자유롭게 짠다. 종이를 덮고 문지른 뒤 편다.
본활동	G미술관 - 민화	
사후 활동	활동명	수묵채색화그리기(민화 그리기)
	활동내용	흰색종이에 펜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화선지를 위에 대어 가는 붓으로 따라 그린다. 조금 마르고 나면 색을 칠한다.

<부록 3> 3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 비교하기
	활동내용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을 짜보고 붓으로 물을 묻혀서 칠해보고 기름을 묻혀 칠해보면서 두 종류의 물감의 특징을 비교해본다.
본활동	S아트센터	- 수채화전, 야외조각전 감상
사후 활동	활동명	화가 초대하기
	활동내용	화가를 초대하여 궁금했던 것을 질문해본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눈다.
	활동명	수채화그리기
	활동내용	도화지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물감의 농도를 잘 조절하여 색칠해본다.

<부록 4> 4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조각상 따라 해보기
	활동내용	유명한 조각상의 그림을 보면서 몸으로 따라해보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서 이야기도 해본다.
	활동명	설치미술에 대해 조사해보기
	활동내용	설치미술이란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조사하여 이야기 해본다.
본활동	L미술관	- 설치미술 감상
사후 활동	활동명	설치미술 작품 만들어보기 (1)
	활동내용	미술관에서 본 물고기모빌의 설치미술을 따라한다. 빨간색소물을 비닐봉지에 붓고 물고기 모형을 넣어서 주머니를 만든다. 여러개를 만들어 낚시줄에 묶어 일정한 장소에 전시한다.
	활동명	설치미술 작품 만들어보기 (2)
	활동내용	세장을 이용하여 뽕뽕이나 낙엽, 리본끈 등으로 구성된 설치미술작품을 만들고 각각의 제목을 붙여본다.

<부록 5> 5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다양한 벽화 그림 감상하기
	활동내용	벽화가 무엇인지, 벽화를 본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양한 벽화를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다.
	활동명	바닥에 물그림 그리기
	활동내용	유치원마당에서 바닥에 주전자와 물뿌리개, 큰 붓을 이용하여 물그림을 자유롭게 그린다.
본활동	G미술관	- 어린이 벽화, 조각상감상
사후 활동	활동명	어린이 벽화 만들기
	활동내용	미술관에서 감상했던 그대로 해본다. 가로세로7cm크기의 사각형 안에 나의 꿈에 대해 그려본다. 유아들의 그림을 같은 크기의 우드락을 밑에 대어서 간격에 맞추어 벽에 붙여전시한다.

<부록 6> 6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어떤 그림을 전시할까?
	활동내용	유아들의 그림 중 어떤 그림을 전시 할 것이며 어떤 작품을 더 해보고 싶은지 함께 결정한다.
본활동	S갤러리	- 우리들의 작품 감상
사후 활동	활동명	작품 철거하기
	활동내용	미술관을 다시 찾아가서 감상해본 뒤 입체작품과 평면작품의 각각 특성에 맞추어 그림을 떼어내고 상자나 비닐에 정리한다.

<부록 7> 7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야외스케치
	활동내용	인근 산에 가서 연필로만 상세하게 풍경화를 그린다.
본활동	H 미술관 - '아시아를 이끄는 힘' 팝아트, 섬유미술,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회화, 유화, 야외조각, 수채화 감상	
사후 활동	활동명	동판화만들기
	활동내용	동판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굵은 붓을 이용하여 굵고 두드리면서 그림을 표현한다.

<부록 8> 8회기 미술관 관람 활동

사전 활동	활동명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기. 인터넷 조사
	활동내용	디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지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해본다. 유아들끼리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 알아본다.
본활동	Y 디자인미술관 - '일상속의 디자인의 경이로움'	
사후 활동	활동명	무언극하기
	활동내용	디자인으로 된 물건을 찾아본 끝에 동물얼굴털모자가 가 장 멋진 디자인으로 유아들에게 선정되었다. 여러동물의 모자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를 만들고 말없이 무언극으로 진행한다.